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석사학위논문

사회적 지원 연결망에 따른
한국인 연령구간의 재구성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김 이 선

사회적 지원 연결망에 따른
한국인 연령구간의 재구성

지도교수 한 신 갑

이 논문을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김 이 선

김이선의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8월

위원장

박 경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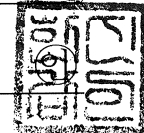
부위원장

구 혜 란



위원

한 신 갑



<국문초록>

사회적 지원 연결망에 따른 한국인 연령구간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이선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나이를 먹으며 생의 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은 생로병사의 생물학적 변화뿐 아니라 배우고 익히며 생업을 수행하고 가족을 이루는 등의 사회적 변화로도 이뤄진다. 그리고 이 변화는 사회의 문화, 규범, 체계 등에 의해 구조화된다. 연령은 단순한 생존 햇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역할, 사회적 정체성을 반영해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 연구에서 연령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변수이지만, 그 중요성과 함의에 비해 분석 과정에서는 단순하게 사용되어왔다. 연령을 연속적·선형적 변수로 사용하거나, 5년 또는 10년 단위의 범주 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인간 삶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좌표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이 연구는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론적 기반 위에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연령 범주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령 재구성에 기반이 되는 이론은 사회 연결망 이론이다. 사회 연결망 이론은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속한 관계의 총합’이라는 관계론적 시각으로 사회를 분석한다. 나이들며 겪는 사회적 변화는, 사회의 연령 규범과 구조 속에서 그 사람이 위치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에서 포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연결망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 비슷한 연결망을 가진 연령끼리는 같은 구

간으로, 다른 연결망을 가진 연령은 다른 구간으로 분류하여 연령을 재구성하였다. 즉 구간 내 동질성과 구간 간 차별성을 연령 범주화의 방법론적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 자료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4년의 사회적 지원망 조사문항이다. 도구적 지원 영역, 물질적 지원 영역, 정서적 지원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조사한 자료다. 이 응답 정보는 배우자, 부모님으로부터 동네 의사나 사채업자까지를 포괄하여 약 33개의 유형으로 이뤄져 있었는데, latent class 분석으로 비슷한 지원 패턴을 보이는 7개 집단으로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인의 사회적 지원 집단은 ‘배우자/ 친한 친구/ 어머니와 여자형제/ 딸과 이웃/ 아버지, 아들, 남자형제 및 은행·금융기관/ 가깝지 않은 친척을 포함한 기타/ 그 외의 모든 기타’ 집단이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로 중심-중간-주변층을 이룸을 밝혔다.

다음으로 이 7개 집단이 연령에 따라 변하는 패턴에 따라 새 연령 범주를 구성하였다. 사용한 분석법은 판별분석이며, 분석 결과 도출된 연령 범주는 ‘18~26세/ 27~30세/ 31~39세/ 40~67세/ 68~76/ 77~93세’였다. 이러한 범주는 사회 연결망에서 친구와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혼인 후 배우자의 중요성이 급격히 늘고, 출산을 기점으로 이웃이 등장하며, 고령이 될수록 친구와 배우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자녀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의 한국인의 생애주기와 밀접히 맞물려 있었다. 또한 삶이 변하는 속도의 완급에 따라 범주 구간의 길이도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사용했다. 분산분석은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차이의 비율값으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므로, ‘구간 내 동질성과 구간 간 차별성’을 방법론적 기준으로 삼은 이 연구의 방향과 일치한다. 분석 결과, 기존의 연령 범주들 간에 차이가 있는 준거 변수에 대해서는 이 연구가 구성한 연령 범주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체로 더 나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사회 연결망 이론을 바탕으로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해 생애주기를 반영하는 연령 범주를 구성하겠다는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몇몇 변수에서는 가장 좋은 설명력을 보여 준 범주가 각기 달랐다. 연령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여러 특성을 함축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 따라 같고 다른 범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령이 효과적인 분석 범주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의 목적과 분석 대상에 따른 실증적 범주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자, 생애주기를 관계론적으로 읽어낸 결과이다.

주요어: 연령, 연령범주, 사회 연결망, 사회적 지원망, 생애주기, KGSS 2004.

학번: 2011 - 23127

목차

1장. 나이테와 연령	1
2장. 관계론적 시각으로 나이테 다시 읽기	4
1. 기존 선긋기 방식과 그 한계	4
2. 새 틀 짜기	9
(1) 관계론적 시각으로 본 연령	9
(2) 틀 짜기	10
3장. 나이테 새로 그리기	12
1. 자료: 한국종합사회조사	12
(1) 200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12
(2) 사회적 연결망 조사 문항	14
(3) 변수 다듬기: 클러스터 분석	16
2. 분석: 선긋기	25
(1) 1단계: 연령 크게 묶기	25
(2) 2단계: 명확하게 선 긋기	27
3. 해석: 그어놓은 선 읽기	30
4장. 제품 시험	45
1. 시험 방법	45
2. 시험 결과	47
(1) 정치적 태도	47
(2) 사회적 지원 제공 행위의 정도	49
(3) 가족과 친구에 대한 가치관	53
5장. 결론	57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57
2. 연구의 한계 및 더 나아갈 방향 제시	59
참고문헌	61
Abstract	66

표목차

<표 2-1> 기존의 연령 변수 사용 형태	6
<표 3-1> 조사 대상자의 연령 기술통계	13
<표 3-2> KGSS 2004년 조사 대상자의 연령 외 인구통계학적 특성	13
<표 3-3> 응답 항목별 응답자 수 및 응답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 수.....	18
<표 3-4> 각 관계 대상이 3개 영역에서 선택된 비율	19
<표 3-5> 잠재적 집단 분석 결과 도출된 각 집단의 프로파일 지표값	21
<표 3-6> 각 영역에서의 집단 순위, 중심-중간-주변층 구조	23
<표 3-7> 각 Cluster에 소속된 본래 관계 대상들	23
<표 3-8> 지원을 요청하는 대상의 변화에 따른 연령 구분	27
<표 3-9> 판별 분석으로 판별된 집단	29
<표 3-10> 각 연령 구간별 시간 길이	40
<표 3-11> 40세~67세 구간 내 하위 집단 간 차이 분석: 분산분석 결과	42
<표 4-1> 정치적 태도 응답에 대한 기술 통계	48
<표 4-2> 정치적 태도에 대한 연령 범주 집단 차: 분산분석 결과	48
<표 4-3> 문항 응답에 따른 점수 부여	50
<표 4-4> 사회적 지원 행위에 대한 연령 범주 집단 차: 등분산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	51
<표 4-5> 사회적 지원 행위에 대한 연령 범주 집단 차: 이분산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	52
<표 4-6> 가족과 친구에 대한 가치관의 연령 집단 차이: 분산분석 결과	55

그림목차

<그림 3-1> 사회적 지원망 조사 설문 문항 및 응답지	14
<그림 3-2> 7개 관계 대상 집단의 3개 지원 영역 비중도	22
<그림 3-3> 연령에 따른 배우자에 대한 지원 요청 변화	26
<그림 3-4> Cluster_1(배우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청의 변화	31
<그림 3-5> Cluster_2(친한 친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청의 변화	32
<그림 3-6> Cluster_3(어머니, 여자형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청의 변화	34
<그림 3-7> Cluster_4(딸, 이웃)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청의 변화	35
<그림 3-8> Cluster_5(아버지, 아들, 남자형제,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청의 변화	37
<그림 3-9>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연령 집단별	38
<그림 4-1> 정치적 태도를 묻는 해당 설문 문항	47
<그림 4-2> 사회적 지원 제공 행위의 정도	50
<그림 4-3> 가족과 친구에 대한 가치관	54

1장. 나이테와 연령

나무는 1년마다 하나씩 둥근 나이테를 덧붙인다. 이 나이테로 우리는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사람들도 해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는다. 그러나 나이테처럼 눈에 보이는 표식이 더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도 해를 거듭하면서 살아온 시간을 나이테처럼 차곡차곡 축적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두르는 나이테는, 사람이 나무와 같은 생명체로서 겪은 물리적 시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간의 켜를 나타내게 된다.

사람이 축적한 사회적 시간의 길이는 그 사람의 관계와 위치를 구성하는 축이 된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에 따라 가족 안에서의 역할, 경제 활동, 정치적 신념이나 태도, 자기 정체성 등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시간표를 따르는데, 이 사회적 시간표란, 사람들의 연령에 따른 사회의 규범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구성된다 (Neugarten and Datan 1996). 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와 역할은 그 사람이 속한 사회의 연령 구조에도 영향을 받는다(Riley, Foner and Waring 1988; Neugarten 1996; Elder 1985). 각 사회는 고유의 연령 규범과 사회 조직을 형성하는 연령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규범과 구조는 한 사회 구성원이라면 비슷하게 공유하게 되는 대략적인 생애 주기를 형성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이됨에 따라 도달하게 되는 생애주기 단계에서, 그에 해당하는 재사회화 혹은 전환을 경험한다(Neugarten, Moore and Lowe 1965). 관점을 바꾸어 사회가 개인의 연령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개인의 연령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도 있다. 많은 사회 조직들 -가족, 기업, 교육제도- 등은 조직에 진입하거나 퇴장하는 시기가 구성원들의 연령과 연령 규범에 따라 결정된다. 조직의 위계 구조나 문화 등도 구성원들의 주 연령과 연령의 범위 등에 영향을 받는다(Riley 1973, 1987; Elder 1975). 이는 사회 조직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고령 인구의 증가가 정치·경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래서 사회과학은 언제나 연령을 중요한 변수로 생각해왔다. 연령이

사람들의 사회적 역할, 그에 따른 정체성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제하기 때문이다(Settersten and Mayer 1997; Elder 1975). 그래서 한 사람의 연령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을지를, 그에 따른 정체성과 행동양식은 무엇일지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회 조사에는 응답자의 연령 정보가 빠짐없이 수집되며, 연령이 주된 분석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연령은 통제 요인으로서 함께 분석된다.

그러나 사회과학 연구가 전제하는 연령의 중요성과 함의에 비해, 실제 연구 분석 과정에서는 연령이 지나치게 단순한 방식으로 구획·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 왔다(Neugarten and Datan 1996; Burt 1991). 사람의 나이테는 나무와 같이 1년을 단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간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령을 분석할 때에는 살아온 햇수인 자연 연령이 아닌, 사회적 나이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사회과학 연구가 측정과 파악이 손쉬운 자연 연령을 분석에 사용한다. 1년을 단위로 쉰 연령 값 자체를 연속 변수로서 사용하거나, 자료 손질과 직관적 파악이 용이한 5년 혹은 10년 단위의 범주 변수로서 연령을 사용한다. 특히 10년 단위의 연령 구분은 흔히 ‘10대/20대/30대/40대/50대...’와 같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런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10대/20대/30대...’의 범주를 구성하는 각 연령들의 같고 다름에는 정확하지 않은 점이 많다. 연령을 각각의 집단으로 묶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모아야 하고, 이렇게 모인 묶음은 다른 묶음과는 달라야 한다. 구간 내 동질성과 구간 간 차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10세 단위 연령 묶음에서는 이 경계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분류되지 못하는 연령들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2004년 당시에 25세인 여성과 29세인 여성, 그리고 33세인 여성을 생각해 보자. 이 세 사람의 연령 차이는 동일하게 4세이지만, 어떻게 연령을 구분하는가에 따라 다른 집단으로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쓰이는 ‘10대/20대/30대...’의 연령 구분법에서는 25세 여성과 29세 여성은 20대로, 33세 여성은 30대로 묶인다. 그러나 2004년 여

성의 평균 혼인 연령이 27.5세임을 감안하면, 29세인 여성은 그 사회적 정체성 혹은 위치가 25세 여성보다는 33세 여성과 비슷할 수 있다. 혼인은 삶의 구조와 정체성을 전환하는 중요한 생애 사건이며, 그 이전과 이후의 인간관계도 질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연령을 기계적으로 5세 혹은 10세 단위로 구분한다면 이런 식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연령을 구분해야 할 것인가?

29세 여성이 25세 여성이 아닌 33세 여성과 묶일 수 있는 까닭은, 27.5세 즈음에 혼인이라는 사건이 일어나, 25세의 인간 관계와 사회적 정체성을 33세의 인간 관계와 사회적 정체성에 가깝게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몇 년을 살았다는 숫자의 변화나 혼인이라는 특정 사건 자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개로 작동하는 사회적 압력과 규범의 변화, 즉 사회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연령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사회 구조 속에 위치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적 좌표다. 그런데 좌표라는 것은 하나의 점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위치의 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점들과 구분되어 위치할 수 있는 좌표축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연령이 한 사람의 사회적 좌표라면, 연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망이라는 축 위에서 구성되는 구조적 지표인 것이다. 따라서 이 좌표는 관계론적 시각으로 읽는 것이 적합하며 또한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연령에 반영되어 있는 (혹은 사회적 연령을 구성해내는) 사회 연결망을 통해 연령 구조의 지형을 읽고 그 경계선을 다시 그어 볼 수는 없을까? 이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04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사회적 지원망 관련 자료를 통해 특정 연령의 사람들이 맺고 있는 연결망의 양태를 기준으로 연령 범주를 다시 나누어 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2004년 한국에서의 연령의 사회적 의미를 새롭게 읽고, 다시 그려보려는 시도이다.

2장. 관계론적 시각으로 나이에 다시 읽기

1. 기존 선긋기 방식과 그 한계

Burt는 1991년 논문, “Age as a structural concept”에서 “당신의 마지막 연구 과제에서 연령을 의미 있는 범주로 묶기 위해 사용한 기준은 무엇인가?”¹⁾라는 질문을 던진다. 표본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연령 효과에 대한 고려에 따라 연구자들은 다양한 연령 범주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연령의 사회적 의미를 포착해내는 범주 구분 기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Burt 1991).

사회과학 연구에서 연령이 사용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연령을 연속성과 선형성을 가진 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시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즉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조사 시점까지 응답자가 살아온 햇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 이 햇수와 함께 연령의 제곱 값을 사용해 연령의 직선성을 보정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는 연령을 범주형 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범주화 방법은 앞의 방법에 비해 다양하지만 다음의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먼저 연령을 5세 혹은 10세 단위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표본 크기가 큰 경우는 5세 단위로 나누고, 표본 크기가 작아 5세 단위로 나누면 각 단위에 충분한 수의 표본이 할당되지 못하는 경우나 연령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되는 경우에는 10세 단위로 나누기도 한다(Burt 1991). 10세 단위로 나누는 방법은 대체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0세를 기준으로 10세를 더한 나이들(10세, 20세 등)이 중위값이 되도록 나누는 방법(15세~24세/25~34세/35~44세/...)이고, 다른 하나는 십의 자리수가 같은 연령끼리 묶는 방법(10~19세/20~29세/30~39세/...)이다. 특히 후자는 ‘10대/20대/30대...’의 형태로 사회과학 연구뿐 아니라 언론이나 일상에서도 많이 쓰인다.

1) “by what criteria did you collapse age into meaningful age categories for your last research project?” (Burt 1991:2)

다음으로 세대(코호트) 개념을 반영하여 연령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세대란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연령 단계에서 같은 역사적 경험을 한 개인들의 집단을 이르는 개념이다(Ryder 1965). 이 개념은 연령에 따라 인간의 사회적 특성이나 행동이 달라지는 이유는 나이들 자체에서 오는 효과뿐 아니라 사회·역사적 경험을 서로 다른 연령 단계에서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개념이다. 그리하여 세대 효과를 고려하는 많은 연구들은 이 코호트 개념에 따라 연령을 역사적 사건의 발생 시기와 연결하여 세대 단위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인구나 가임 인구를 고려해 노동 시장 진입/은퇴 시기인 14세와 64세를 기준으로 연령을 구분하거나 가임기를 기준으로 15세와 44세(또는 49세)에서 연령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유년층(14세 이하), 청장년층(15~64세), 노년층(65세 이상)과 같은 범주로도 표현되며, 주로 인구학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상의 방법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기존의 연령 변수 사용 형태

변수 종류	분석에 사용되는 형태 (예시)		특성	예	
				논문 사례	논문 내용
연속 변수	AGE		연령의 연속성, 선형성(직선) 가정	Taylor, Kimport, Dyke and Andersen, 2009	시민운동 참여경 험과 결혼에 대한 태도가 동성에 운 동에 미치는 영향 (연령: 통계변수)
	AGE, AGE ²		연령의 연속성, 선형성(곡선) 가정	Rosenfeld and Kleykamp, 2009	히스패닉 지역인 구와 직장 히스패 닉 노조 간 관계 (연령: 통계변수)
범주 변수	5세 또는 10세 단위	(5세 단위) 20~24세 25~29세 ...	연령을 등구간으로 나눔	어수영·곽진 영, 2002	정치 참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연 령: 독립변수)
		(10세 단위1) 25~34세 35~44세 ...		Schieman, Milkie, Glavin, 2009	직장 생활의 단절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검증(연령: 독립변수)
		(10세 단위2) 20~29세(20대) 30~39세(30대) 40~49세(40대) ...		박명호, 2012	고령화가 정치태 도에 미치는 영향 및 세대 간 연속 성 검증(연령: 독 립변수)
	세대 단위	88만원 세대 386세대 베이비붐 세대 산업화 세대	같은 코호트끼리 묵이도록 연령 구분	석재은, 2009	노후 부양관에 영 향을 미치는 세대 요인 검증(연령: 독립변수)
	인구학적 연령 범주	14세 이하 15세~64세 65세 이상	경제활동 연령 또는 가임 연령을 고려한 연령 구분	박기남, 2009	취업 여성의 개인 적 특성 및 고용 조건, 가족 조건이 일-가족 간 시간 분배 갈등에 미치 는 영향(연령: 독 립변수)
	유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경제활동, 가임기 등을 기준으로 성장~노화 단계를 반영한 연령 구분			

위의 연령 구분은 모두 연령의 사회학적 의미를 분석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시에 분석의 편의를 고려한 것들로서,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비율 척도는 서열 척도나 명목 척도에 비해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²⁾, 비율 척도에 해당하는 연속 변수로 연령을 사용하는 것은 보다 정교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방법상의 제약을 덜어준다. 그러나 연령을 연속적이고 선형적인 변수로 사용하려면, 한 살을 더 먹을 때마다 연구에서 분석하는 변수가 한 단위만큼 변한다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Burt 1991). 그러나 삶의 변화는 1년마다 동일한 간격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나이를 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갓 태어난 아기는 하루 단위로 나이를 센다. 좀 더 자라면 ‘생후 몇 개월’로 아이의 성장을 나타내고, 2~3살이 되면 그제야 1년 단위의 나이를 센다. 더 자라면 1년 단위의 나이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인지 고학년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로 그 아이의 나이가 파악된다. 나이가 들수록 이 단위의 길이는 더욱 길어지는데, 중장년층에게는 ‘40대, 50대’ 같은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더 나이가 들면 노인이라는 포괄적인 그룹으로 묶어버리게 된다. 인간 생의 변화라는 게 언제나 1년 단위로 자르기에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연령을 일정한 간격으로 범주화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연령을 범주화하는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의 변화와 1년 단위의 연령이 연속적으로 조용하여 변하지 않으므로, 이를 연속변수로 쓸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연령을 연속적으로 늘어놓았을 때는 각 연령에 배당되는 응답자 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연령 범주에 배당되는 응답자 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 이유는 그러나 5년이나 10년 단위로 범주를 나눌 경우, 인간 생의 변화를 1년 단위로 자를 수 없다는 위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물론 연령을 연속변수로 가정하는 것보다 10대, 20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인간 생의 변화 단계를 보다 잘 반영하겠지만, 삶

2) 예를 들어, 명목척도는 측정된 결과를 범주로 분류시켜 주지만 범주 간의 양적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이에 비해 서열척도는 범주 간에 방향적 관계가 있다는 정보를 추가로 담는다. 등간 척도는 측정된 값의 크기 정보까지 담고 있지만 크기의 비율은 알 수 없고, 비율 척도이어야 비로소 비율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그레이브터, 윌나우 2009).

의 변화가 전 생애에 걸쳐 5년 또는 10년으로 일정하게 나뉘어 일어난다고 보기는 여전히 힘들다. 그런데 10년 단위의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쓰이는 만큼 이 구분 자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나이의 앞자리 수가 바뀌는 시점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 심리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젊은이들은 ‘서른 즈음에’를 노래하고 서점 가에는 ‘~대에 해야 할 일’, ‘~대를 위한 무엇 무엇’, ‘~대에 시작하는 무엇’ 등과 같은 제목을 단 서적들이 판매된다. 그러나 여전히, 10대 단위의 연령 구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적 느낌을 넘어 사회적 행위나 위치 변화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사회과학적 함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영향에 대한 함의뿐 아니라, 연령을 범주화 하는 방법이 어떠한 이론적, 방법론적 기반 위에서 이뤄지는 것인지 또는 이뤄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함의도 부족하다.

또한 각 연령별 인구의 역사적, 사회적 차이를 포섭하기 위해 세대 범주를 사용하는 경우, ‘각 세대를 분류하는 기준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의 공유라는 정의를 넘어, 경험적 자료에 기반한 실증적 분석에 기반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세대 분류는 연령에 따른 변화보다는 특정 시기에 경험한 특정 사건의 영향력이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세대 구분이 연령 범주로 완전히 호환되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경제 활동 및 가임 연령을 기준으로 한 연령 범주는 연구 영역에 따라서는 알맞은 범주가 될 수 있지만, 연령 구분의 기준이 ‘경제활동 인구인가/아닌가’, ‘가임 인구인가/아닌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외의 인간 생애의 세분화된 변화를 차례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연령은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과 맥락에 따라, 범주화의 실증적·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범주화 중에서도 특히 연령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가 실증적·이론적 기반이 부족하다. 대안 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비해 인구학적 특성

에 기반한 범주화는 인간의 생애주기 변화를 좀더 자세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연구의 목적과 범주화의 기준이 명확하다. 세대 구분 범주도 범주화의 목적과 세대 이론에 기반한 범주화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 이 기준에 대한 실증적 검증도 또다른 연구 문제로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이 연구에서의 목적과는 맥을 달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연령 재구성은, 경제활동 인구나 특정 세대가 아니라 성인 일반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에서의 연령 정보를 단순히 등간격으로 나누지 않고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가를 목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재구성한 연령 범주가 설사 기존에 사용되던 등간격 범주와 동일하게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의 연령 범주는 그 구분 근거가 명확한 것으로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2. 새 틀 짜기

(1) 관계론적 시각으로 본 연령

연령은 사회 구조와 밀접히 맞물려 있는 지표이므로 이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관계론적 시각이 적합하고 또 유용할 것임을 1장에서 살펴보았다. 사람은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의 총합이라는 관계론적 시각에 따르면, 그 사람의 사회적 지표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위치해 있는 연결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논문이 Burt의 1991년 논문 “Age as a structural concept”이다. 이 논문에서 그는 1985년 실시된 미국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이하 GSS)의 연결망 조사 문항을 사용하여 연령 범주를 재구성해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가 ‘중요한 문제에서 의논하는 사람’으로 언급한 5명의 연령으로 구성된 연령 연결망에 따라 연령 간 구조를 드러내고, 이에 따라 연령 범주를 나누었다.

또한 이 논문은 범주를 나눌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같은 것들은 같이, 다른 것들은 달리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고 다름은

특정 속성들의 갖고 다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위치의 같고 다름(구조적 등위성)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Burt(1991)가 든 한 예로 교육 년수를 생각해보자. 교육 년수가 11년인 사람과 12년인 사람은 교육을 받은 기간이 1년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고교 중퇴와 고교 졸업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집단에 속하게 된다. 여기서 교육 년수 11년에서 12년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큰 차이 내지는 질적인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경험이 그 사람의 사회적 역할을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기대하는 역할로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교육 년수 11년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치 혹은 역할이 교육 년수 12년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범주로 나뉘어야 한다. 연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회 연결망 속에서 유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범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범주로 나누어야 한다.

(2) 틀 짜기

연령을 5년이나 10년 단위로 구획할 때는 그 사람이 태어난 년도를 알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 사람의 연결망에 따른 연령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장에서는 관계론적 시각으로 연령 범주를 재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겠다.

사회 연결망은 단일한 측면에서 한 번에 관찰 또는 경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관찰, 조사할 수 있는 형태로 조작화해야 한다. 앞서의 연구(Burt 1991)에서도 조작화된 문항으로 구성된 연결망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마다 대상과 목적에 따른 다양한 조작화 방법이 있을 것이나, 미국 종합사회조사(GSS),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이하 ISSP), 한국 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이하 KGSS)와 같은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사회조사에서는 사회적 지원 연결망을 사회 관계망의 지표로서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 연결망은 개

인이 생애 과정 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포괄하는 지원 범주를 설정하고, 각 범주에서 어떤 대상에게 도움을 구할 것인지를 응답하게 하여 구성된다. ISSP나 KGSS에서는 일상적/ 경제적/ 심리적 영역 등 도움이 필요한 몇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각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응답하게 한다. GSS에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자문을 구할 사람을 제시하도록 한다. 문항의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응답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계 대상들을 파악하여 사회 연결망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원망을 사용하여, 각 연령별로 사회적 지원망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관찰한 뒤, 그 패턴을 분석해 같은 형태의 사회적 지원망을 갖는 연령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고자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새로운 연령 범주가 정말로 실질적이고 경험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구성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는 5년 혹은 10년 단위의 연령 구간과 비교하는 분석을 시행하겠다.

3장. 나이테 새로 그리기

1. 자료: 한국종합사회조사

(1) 200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이 연구는 성균관 대학교 서베이리서치 센터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2004년 자료를 분석에 사용한다. KGSS는 미국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NORC)의 GSS를 기본 모형으로 하는 반복 기본 문항과 ISSP의 다양한 주제 모형과 연계된 특별 문항으로 구성된다. 반복 기본 문항은 응답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정치 성향, 경제 전망, 사회적 신뢰, 일상생활 등을 매년 조사한다. 특별 문항은 사회적 지원, 건강, 환경, 직업관 등을 해당년도에만 조사한다. 이 연구에서 2004년 조사를 선택한 이유는, 분석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연결망’을 조사한 것이 2004년 특별 문항이기 때문이다. 2004년 KGSS와 연계된 ISSP 주제 중 하나가 ‘사회관계와 지원체계’였고,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의 사회적 지원 연결망에 대한 문항이 포함됐다.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다단계지역 집락 표집방법(multi-stage area cluster sampling method)으로 표본을 추출해 이뤄졌다. 조사 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4년 8월까지였고 1,312명의 유효사례수가 수집됐다.³⁾ 이 중에서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하는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10명은 결측 사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측 사례를 제외한 자료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 <표 3-1>, <표 3-2>와 같다.

3) 『한국사회종합조사 KGSS 2004』, 석현호 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19쪽.

<표 3-1> 조사 대상자의 연령 기술통계

유효: 1302, 결측: 0, 합계: 1302 (100%), 평균: 43.57

연령	빈도	비율 (%)	연령	빈도	비율 (%)	연령	빈도	비율 (%)	연령	빈도	비율 (%)	연령	빈도	비율 (%)
18	8	0.6	32	38	2.9	46	21	1.6	60	15	1.2	74	3	0.2
19	24	1.8	33	28	2.2	47	24	1.8	61	11	0.8	75	8	0.6
20	12	0.9	34	37	2.8	48	27	2.1	62	14	1.1	76	5	0.4
21	11	0.8	35	40	3.1	49	14	1.1	63	20	1.5	77	4	0.3
22	17	1.3	36	39	3.0	50	27	2.1	64	14	1.1	78	3	0.2
23	34	2.6	37	36	2.8	51	9	0.7	65	16	1.2	79	4	0.3
24	25	1.9	38	39	3.0	52	28	2.2	66	10	0.8	80	5	0.4
25	20	1.5	39	43	3.3	53	14	1.1	67	13	1.0	81	2	0.2
26	26	2.0	40	44	3.4	54	16	1.2	68	20	1.5	82	3	0.2
27	30	2.3	41	26	2.0	55	11	0.8	69	17	1.3	83	4	0.3
28	15	1.2	42	27	2.1	56	20	1.5	70	19	1.5	84	3	0.2
29	26	2.0	43	35	2.7	57	13	1.0	71	12	0.9	85	1	0.1
30	23	1.8	44	22	1.7	58	14	1.1	72	15	1.2	87	1	0.1
31	44	3.4	45	35	2.7	59	11	0.8	73	6	0.5	93	1	0.1

<표 3-2> KGSS 2004년 조사 대상자의 연령 외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 통계학적 변인	하위 집단	인원 (%)
성별	남	602 (46.2 %)
	여	700 (53.8 %)
	합계	1302 (100.0 %)
배우자 유무	기혼	863 (66.3 %)
	사별	104 (8.0 %)
	이혼	36 (2.8 %)
	별거	8 (0.6 %)
	미혼	291 (22.4 %)
	합계	1302 (100.0 %)
학력	무학	71 (5.5 %)
	초등(국민)학교	129 (9.9 %)
	중학교	116 (8.9 %)
	고등학교	436 (33.5 %)
	전문대학	130 (10.0 %)
	대학교	367 (28.2 %)
	대학원(석사 이상)	47 (3.6 %)
	결측(모름,무응답,비해당)	6 (0.5 %)
	합계	1302 (100.0%)

(2) 사회적 연결망 조사 문항

이 연구는 생애 주기에 따라 변하는 주요 사회 관계를 파악하여 그에 따라 연령을 구획하고자 하므로, KGSS 내용 중에서도 '사회적 지원망'을 조사한 문항을 중심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사회적 지원망은 개인이 맺고 있는 주요한 사회적 관계를 포착하기 위해, 그 사람이 삶 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어떤 대상으로부터 지원 받는가를 조사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망 안에서 필요한 자원과 도움을 교환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적 지원망은 그 개인의 사회적 경험과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는 동시에, 개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개인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 관계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구혜란 2005). 이 때문에 사회적 지원망에 대한 다양한 연구(Turner and Mario 1994)가 있어 왔고, GSS나 ISSP에서도 사회적 지원망에 대한 조사 문항이 포함되기도 한 것이다. 2004년 KGSS의 문항은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사회적 지원망 조사 설문 문항 및 응답지

62.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귀하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순서대로 두 분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기에서 꼭나 해당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첫째	둘째
1) 감기가 심하게 들어 식사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_____	_____
2)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_____	_____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_____	_____

< 보기 >

(01) 배우자	(11) 본인의 여자형제	(21) 성직자
(02) 본인의 아버지	(12) 배우자의 남자 형제	(22) 고용주
(03) 본인의 어머니	(13) 배우자의 여자 형제	(23) 정부 또는 공공서비스기관
(04) 배우자의 아버지	(14) 기타 혈연관계의 친척	(24) 은행 또는 여타 금융기관
(05) 배우자의 어머니	(15) 기타 혈연관계가 아닌 친척	(25) 사채업자
(06) 딸	(16) 친한 친구	(26) 동네병원 의사 또는 가정의
(07) 며느리	(17) 이웃	(27) 정신과 의사 또는 전문상담원
(08) 아들	(18) 직장동료	(28) 자조집단 (예: 금연 동아리)
(09) 사위	(19) 파출부 또는 파트타임 인부	(29) 기타 (누구: _____)
(10) 본인의 남자형제	(20) 사회복지단체	(99) 없음

응답자가 위의 문항에 모두 응답하면, 연구자는 해당 응답자가 감기가 심하게 들어 식사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사회 연결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각 경우는 차례대로 도구적 지원, 물질적 지원, 정서적 지원으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구혜란 2005), 각 영역으로 구성된 사회적 지원은 개인이 자신의 사회 연결망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와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 연결망의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Turner and Marino 1994).

그리고 이 연결망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그 형태가 변할 것이다. 예를 들어 22살에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지만, 45살에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취직을 한 이후에는 경제적 독립을 이뤄야 하고, 나이가 들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문화 혹은 연령 규범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22살 자녀와 부모 사이의 경제적 차이와 45살 자녀와 부모 사이의 경제적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망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연령에 따라 변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사 문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결망 대상 정보는 각 영역에서 최대 2명씩(첫 번째로 도움을 요청할 사람, 그 다음으로 도움을 요청할 사람) 6명이다. 이 때 2명은 선형적 혹은 경험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1명일수도 있고, 5명 혹은 그 이상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결망을 조사할 때,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여 조사할 것인지는 연결망 분석 방법의 과제 중 하나이다(Wasserman and Faust 1994).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맥락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연결망의 경계를 설정하게 된다. 이 조사 문항에서는 세 가지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2명까지 응답하도록 했으므로, 연구자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연결망의 범위는 6명이다. 하지만 이 6명이 응답자의 온전한 지원 연결망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연

결망의 일부를 잘라낸 것이므로 반드시 6명의 정보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조사된 자료를 살펴보면, 두 번째 응답에서의 결측 응답 수가 적지 않다. 첫 번째 응답만으로도 연령에 따른 지원 연결망 변화가 포착된다면 두 번째 응답의 결측 값 때문에 많은 응답자를 잃을 필요가 없다. 즉 이 연구는 지원 연결망의 구성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연령에 따른 지원 연결망의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첫 번째 응답만으로도 연령에 따른 변화가 포착된다면 여러 응답자를 결측 사례로 제외하면서까지 두 번째 응답을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분석 대상에는 첫 번째로 도움을 요청할 사람에 대한 응답만을 포함시켰다.

(3) 변수 다듬기: 클러스터 분석

위 조사 문항으로 각 응답자의 사회 연결망을 구성하면, 이 사회 연결망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3-1>의 설문 문항은 각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모든 응답지를 포괄하여 약 30가지 응답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논리적으로는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잘 도움을 청하게 되지 않는 (특히 도움을 가장 먼저 혹은 그 다음으로 청할 정도로 가깝지는 않은) 응답 유형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 3-3>는 각 응답지(관계 대상 유형)를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들 수와 실제로 각 응답지를 선택한 사람들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때 각 응답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들 수(선택 가능 인구수)란, 총 1302명의 조사 대상자 중에서 각 응답지에 해당하는 관계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해당 응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총 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배우자'라는 응답지는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만이 응답할 수 있다.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이 응답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배우자가 있음에도 해당 도움을 요청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선택 가능 인구수를 따로 도출했다. 이 값은 특히 다음 단락에서 설명할 <표 3-4>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하다. 각 선택 가능 인구수는 해당 관계 여부를 알 수 있는 KGSS의 여타 문항을 활용하여 계산했고,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어떤 사람이든 선택이 가능한 '이웃', 파트타임 인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항목

은 선택 가능 인구수를 조사 대상자 총 수인 1302명으로 설정하였다.

<표 3-3>를 살펴보면, ‘사위’, ‘동네 병원의 및 가정의’, ‘정신과 의사’ 항목을 선택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파트타임 인부’, ‘사회복지 단체’, ‘고용주’, ‘정부 및 공공기관’, ‘사채업자’, ‘자조집단’ 등의 항목 역시 선택한 사람들 수가 매우 적다. 이들 응답 유형은 조사 결과상으로는 매우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여 개별 항목으로는 분석상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면서도, 그 숫자는 많다. 따라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본 분석에 앞서, 30개 이상의 응답지 유형을 비슷한 기능을 갖는 것끼리 묶어 그 수를 줄이고자 했다. 응답자가 ‘(29)기타’ 항목에서 서술형으로 답한 새로운 응답을 포괄하면, 선택항은 총 34가지가 된다.⁴⁾ 여기서 ‘없음’을 제외한 33개의 선택항은 개인이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관계 대상 유형을 망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아플 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대상이 ‘(01)배우자 ~ (29)기타’ 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각 관계 대상은 집안일을 부탁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빌려주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우울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관계 대상은 집안일을 부탁할 때는 찾지만, 돈이 필요할 때는 찾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관계 대상은 돈을 빌릴 때만 찾고 우울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집안일을 공유하지는 않을 수 있다. 즉 33개의 관계 대상은 도구적 지원, 물질적 지원, 정서적 지원의 3개 영역에서 다른 비중을 갖는다. 이 때 3개 영역에서 등장하는 정도가 비슷한 유형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부탁할 때만 찾는 유형들을 하나로 묶고, 집안일을 부탁할 때와 우울한 이야기를 나눌 때 찾는 유형들을 하나로 묶고, 돈을 빌릴 때와 우울한 이야기를 나눌 때 찾는 유형들을 하나로 묶는 식이다. 그리하여 전체 인구에 대해 비슷한 기능을 갖는 관계 대상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4) 원 자료는 35가지로 코딩되어 있다. 응답지 중 하나가 ‘119’인데, <그림1>의 세 가지 문항 모두에서 ‘119’를 답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아 이 유형을 제외했다. 이 유형에 속했던 응답은 ‘(23)정부 또는 공공서비스 기관’ 응답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설문지에는 없었으나, 응답자의 서술형 응답으로 인해 추가된 기타 응답 유형은 ‘이성 친구 및 애인’, ‘학교 선배’, ‘학교 후배’, ‘이전 배우자 및 관련인’이었다.

각각 분류하고, 이렇게 묶여서 숫자가 적어진 유형들의 변화를 기준으로 연령을 새롭게 구획할 것이다. 이를 위해 <표 3-3>를 이용해 33가지 종류의 관계 대상이 도구적 지원/물질적 지원/정서적 지원 영역에서 실제 얼마만큼의 비율로 도움을 주는가를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표 3-3> 응답 항목별 응답자 수 및 응답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 수
(단위: 명)

관계 대상	도구적지원	물질적지원	정서적지원	선택가능인구
(1) 배우자	562	116	270	863
(2) 아버지	13	114	2	600
(3) 어머니	207	141	33	871
(4) 배우자의아버지	0	12	1	663
(5) 배우자의어머니	22	7	0	663
(6) 딸	93	26	31	800
(7) 며느리	24	2	4	78
(8) 아들	39	87	23	800
(9) 사위	0	0	0	53
(10) 남자형제	13	89	21	1203
(11) 여자형제	84	120	89	1203
(12) 배우자의남자형제	6	15	1	894
(13) 배우자의여자형제	6	14	8	894
(14) 기타혈연관계친척	16	24	7	1302
(15) 비혈연관계친척	2	9	5	975
(16) 친한친구	93	197	625	1302
(17) 이웃	48	32	63	1302
(18) 직장동료	8	21	32	723
(19) 파트타임인부	4	0	0	1302
(20) 사회복지단체	1	0	1	1302
(21) 성직자	2	2	10	1302
(22) 고용주	0	5	0	465
(23) 정부및공공기관	0	2	0	1302
(24) 은행및금융기관	0	164	0	1302
(25) 사채업자	0	2	0	1302
(26) 동네병원및가정의	0	0	0	1302
(27) 정신과의사	0	0	0	1302
(28) 자조집단	0	1	3	1302
(29) 기타	1	0	0	1302
(기타:서술형응답)이성친구	7	2	6	1302
(기타:서술형응답)선배	0	2	2	1302
(기타:서술형응답)후배	0	0	2	1302
(기타:서술형응답) 이전 배우자 및 관련인	3	4	0	140
(99) 없음	46	92	62	1302
합계 (결측값 제외)	1300	1302	1301	-

<표 3-4> 각 관계 대상이 3개 영역에서 선택된 비율⁵⁾

관계 대상	도구적 지원(%)	물질적 지원(%)	정서적 지원(%)
(1) 배우자	65.1	13.4	31.3
(2) 아버지	2.2	19.0	0.3
(3) 어머니	23.8	16.2	3.8
(4) 배우자의아버지	0.0	1.8	0.2
(5) 배우자의어머니	3.3	1.1	0.0
(6) 딸	11.6	3.3	3.9
(7) 며느리	30.8	2.6	5.1
(8) 아들	4.9	10.9	2.9
(9) 사위	0.0	0.0	0.0
(10) 남자형제	1.1	7.4	1.7
(11) 여자형제	7.0	10.0	7.4
(12) 배우자의남자형제	0.7	1.7	0.1
(13) 배우자의여자형제	0.7	1.6	0.9
(14) 기타혈연관계친척	1.2	1.8	0.5
(15) 비혈연관계친척	0.2	0.9	0.5
(16) 친한친구	7.1	15.1	48.0
(17) 이웃	3.7	2.5	4.8
(18) 직장동료	1.1	2.9	4.4
(19) 파트타임인부	0.3	0.0	0.0
(20) 사회복지단체	0.1	0.0	0.1
(21) 성직자	0.2	0.2	0.8
(22) 고용주	0.0	1.1	0.0
(23) 정부및공공기관	0.0	0.2	0.0
(24) 은행및금융기관	0.0	12.6	0.0
(25) 사채업자	0.0	0.2	0.0
(26) 동네병원및가정의	0.0	0.0	0.0
(27) 정신과의사	0.0	0.0	0.0
(28) 자조집단	0.0	0.1	0.2
(29) 기타	0.1	0.0	0.0
(기타: 서술형응답) 이성친구	0.5	0.2	0.5
(기타: 서술형응답) 선배	0.0	0.2	0.2
(기타: 서술형응답) 후배	0.0	0.0	0.2
(기타: 서술형응답) 이전 배우자 및 관련인	2.1	2.9	0.0

위 <표 3-4>는 각 관계 대상을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해당 관계 대상을 선택한 비율을 3개의 지원 영역 별로 나타낸 것이다. 즉 <표 3-3>에서 “실제 응답한 사람 수/응답이 가능했던 인구 수”를 계산한 값이다. 예를 들어 <표 3-3>의 첫 행을 보자. 기혼자 863명 중 집안일을 부탁

5) 이 표에 제시되어 있는 퍼센티지 값은 본문에서 설명한 식에 의해 계산된 값으로서, Row Sum도 Column Sum도 아니다.

할 때 배우자에게 부탁한다고 한 사람이 562명으로, 그 비중은 약 65%이다. 돈을 빌릴 때 배우자를 찾는 사람은 약 13%이고, 슬픈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으로 배우자를 선택한 사람은 약 31%이다. 이런 식으로 <표 3-4>를 읽으면 된다. <표 3-4>의 두 번째 행에 있는 아버지는 도구적 지원 영역에서 2%, 물질적 지원 영역에서 19%, 정서적 지원 영역에서 0.3%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배우자는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훨씬 비중 있는 지원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는 주로 도구적 지원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지원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데 반해, 아버지는 주로 물질적 지원 영역에서만 도움을 주고 나머지 영역에서의 비중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각 관계 대상의 3개 영역 별 기능의 상대적 크기값(즉 비율)을 바탕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관계 대상들을 분류 분석 기법을 통해 몇 개의 집단으로 묶을 수 있다. 여기서 사용한 방법은 ‘latent class clustering’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clustering 방법은 설명 변수의 속성이 비슷한 객체들을 같은 집단으로 묶어주는 통계 분석법이다. 각 개체들의 속성이 비슷할수록 가깝게, 다를수록 멀게 측정되는 유사성 거리를 설정하여, 그 값에 따라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는다. 비슷한 것들을 집단 안으로(구간 내 동질성), 다른 것들을 집단 밖으로(구간 간 차별성) 분류하는 이 연구의 큰 방법론적 틀과 맥을 같이 하는 분석 방법이다.

Latent class clustering 방법은 개별 사례들이 잠재적 집단들에 속해 있음이 선형적으로 가정되어 있고, 잠재적 집단 개수 K 와 각 집단의 크기는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다(Kaufman and Rousseuw 1990, Han and Chi 2012에서 재인용). Wellman(1994)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나의 대상 혹은 집단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기보다는 지원의 종류에 따라 다른 대상 혹은 집단으로부터 지원을 제공받는다. 보통은 하나의 집단이 한두 가지의 지원을 주로 제공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포괄한 33개의 선택지는 어떤 지원을 주로 제공하느냐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종류의 집단으로 나눌 것인지, 각 집단에 어떤 관계 대상 유형이 속할지는 선형적으로

로 전제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여 latent class clustering 방법을 사용해 각 관계 대상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33개의 관계 대상이 7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집단의 차원별 프로파일 지표값⁶⁾은 아래 <표 3-5>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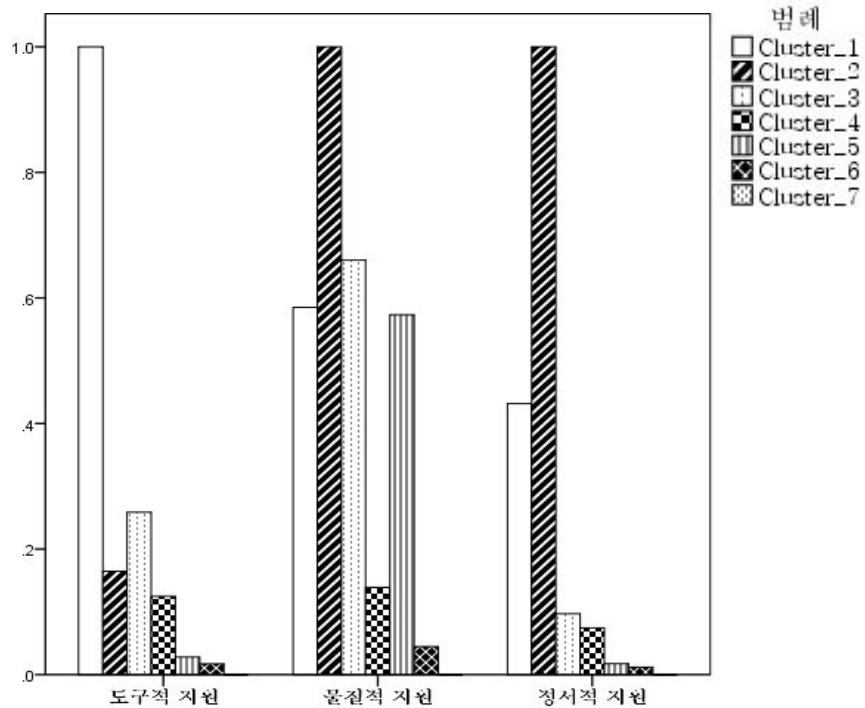
<표 3-5> 잠재적 집단 분석 결과 도출된 각 집단의 프로파일 지표값

Models for Profile Indicators							
	Clust.1	Clust.2	Clust.3	Clust.4	Clust.5	Clust.6	Clust.7
도구적 지원	560.11	92.81	145.31	70.44	16.27	10.31	0.65
물질적 지원	115.71	196.40	130.33	29.02	113.43	10.68	1.99
정서적 지원	269.16	622.86	60.96	46.99	11.53	8.10	0.65

위 <표 3-5>의 값들은 각 집단(Cluster)이 3개의 지원 영역에서 어느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이 값을 0~1의 값으로 표준화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3개 사회적 지원 영역에서 각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집단이 무엇인지, 집단 간의 유형 차이는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 <그림 3-2>와 같다.

6) 각 집단의 전체/집단별 Intercept와 집단 규모 등을 조정해 도출되는 값

<그림 3-2> 7개 관계 대상 집단의 3개 지원 영역 비중도



<그림 3-2>를 살펴보면, 각 집단(Cluster)이 도구적 지원, 물질적 지원, 정서적 지원에서 얼마만큼씩 상대적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볼 수 있다. 각 집단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Cluster_1은 도구적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데 반해,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은 Cluster_2에 비해 비중이 적다. 그래도 Cluster_2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 비해서는 높은 비중을 보인다. 이 그래프를 통해 Cluster_1과 2가 (패턴은 서로 다르지만) 모든 지원 영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luster_3, 4, 5는 중간 수준의 비중을 보여주는 동시에,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에 비해 물질적 지원에 더 많이 동원되는 형태를 비슷하게 보여준다. 나머지 Cluster_6과 7은 그래프의 가장 아래에서 거의 아무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각 영역에서의 비중 차이를 순위를 매겨 표현해보면 아래 <표 3-6>과 같다. <표 3-6>은 clustering 결과 도출된 7개 집단이 중심-중간-주변층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6> 각 영역에서의 집단 순위, 중심-중간-주변층 구조

	일상적 영역	경제적 영역	심리적 영역	
Cluster_1	1	3	2	중심층1
Cluster_2	3	1	1	중심층2
Cluster_3	2	2	3	중간층1
Cluster_4	4	5	4	중간층2
Cluster_5	5	4	5	중간층3
Cluster_6	6	6	6	주변층1
Cluster_7	7	7	7	주변층2

각 영역에서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luster_1과 2가 한국인의 사회 연결망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차례로 3, 4, 5가 중간층에, 그리고 6와 7이 주변층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각 Cluster에 속한 본래의 관계 대상들은 누구인가?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3-7>와 같다.

<표 3-7> 각 Cluster에 소속된 본래 관계 대상들

분류된 집단	소속된 관계 대상들
Cluster_1	배우자
Cluster_2	친한 친구
Cluster_3	어머니, 여자 형제
Cluster_4	딸, 이웃
Cluster_5	아들, 아버지, 남자 형제, 은행 및 금융기관
Cluster_6	며느리, 배우자의 어머니, 배우자의 남녀형제, 기타 혈연/비혈연 친척, 직장 동료, 성직자, 이성 친구
Cluster_7	배우자의 아버지, 사위, 파출부 또는 파트타임 인부, 사회복지단체, 고용주, 정부 또는 공공서비스 기관, 사채업자, 동네 병원 의사 또는 가정의, 정신과 의사 또는 전문 상담원, 자조집단, 기타, 선배, 후배, 이전 배우자 및 관련인

<표 3-7>을 다시 <그림 3-2>와 연결시켜 보면, <표 3-6>의 중심-중간-주변층 구조가 더욱 잘 이해된다. 한국 사람들의 사회 지원망 중심층에는 배우자와 친한 친구가 자리 잡고 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등의 도구적 지원이든, 큰 돈을 빌려주는 물질적 지원이든, 우울함을 함께 나누는 정서

적 지원이든, 배우자와 친구가 가장 중요한 지원자인 것이다. 다만 사람들은 도구적 지원이 필요할 때는 배우자를 더 많이, 물질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때는 친한 친구를 더 많이 찾는다. 이러한 특성은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사회적 지원 연결망의 국제 비교를 시행한 구혜란(2005)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한국 사회만의 특징으로서 스웨덴이나 미국과 같은 서구 국가에서는 배우자가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에서 주요한 기능을 함이 밝혀진 바 있다.

다음으로 많은 도움을 요청받는 것은 어머니와 여자 형제다. 이들은 도구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 영역에서 좀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인식된다. 자식(딸, 아들), 아버지, 남자 형제, 이웃, 은행 및 금융기관이 다음 중간층 2개에 머물러 있고, 그 밖의 모든 유형들이 사회 지원망에서 거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주변층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중심층에 있는 소수의 집단이 대부분의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고, 주변부로 갈수록 지원 가능한 집단들은 종류가 많아지고 범위가 넓어지지만 제공하는 지원은 크지 않은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중심층을 이루는 소수 집단은 큰 비중으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한두 영역으로 전문화 된 자원을 제공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같은 자료를 분석하여 국제 간 비교를 시행한 앞의 논문(구혜란 2005) 결과와도 일치하며,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계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예로 Wellman(1994)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종류의 공동체 안에서 넓은 범위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경험적 연구는 하나의 관계를 통해 지원되는 자원의 종류는 한두 가지로 특정되어 있다고 말한다. 작은 도움이나 감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계는 큰 규모의 지원이나 경제적 도움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는 거의 모든 종류의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Wellman and Wellman 1992). 따라서 사람들은 삶에서 필요한 여러 종류의 자원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관계망을 구성, 유지해야 한다. 이를 웰먼은 “사람들이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잡화점이 아니라, 특화된 소매품점(Boutique)에 가야한다”⁷⁾고 표현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사회적 지위가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자원도 달라진다. 앞서서도 든 예로, 22살은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게 부자연스럽지 않지만, 45살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필요한 것에 꼭 맞는 자원을 얻기 위해 특화된 소매품점에 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젊은 사람이 즐겨 찾는 브랜드와 나이 든 사람이 즐겨 찾는 브랜드가 다른 것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관계 대상들, 즉 사회 관계망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변화 패턴을 안다면, 그 패턴과 연령을 연결시킴으로써 사회적 연결망이 달라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연령 구분선을 새로 그릴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 선 긋기

이 장에서는 연령 구간을 구획할 지점을 찾아보겠다. 연령 구간이 나뉘는 지점을 찾아 선을 긋는 작업은 크게 두 단계로 이뤄진다. 첫 번째 단계는 각 연령의 사람들이 위에서 분류한 7개 집단에 대해 어떤 패턴으로 도움을 요청하는가를 살펴보아, 연령의 큰 덩어리를 만드는 작업이다. 두 번째 단계는 통계 분석을 사용해 첫 번째 단계에서 묶어 놓은 큰 덩어리들이 제대로 구분된 것인가를 확인하고, 거칠게 큰 덩어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명확한 분류가 어려웠던 경계 선상의 연령들을 제 위치에 맞게 배분하는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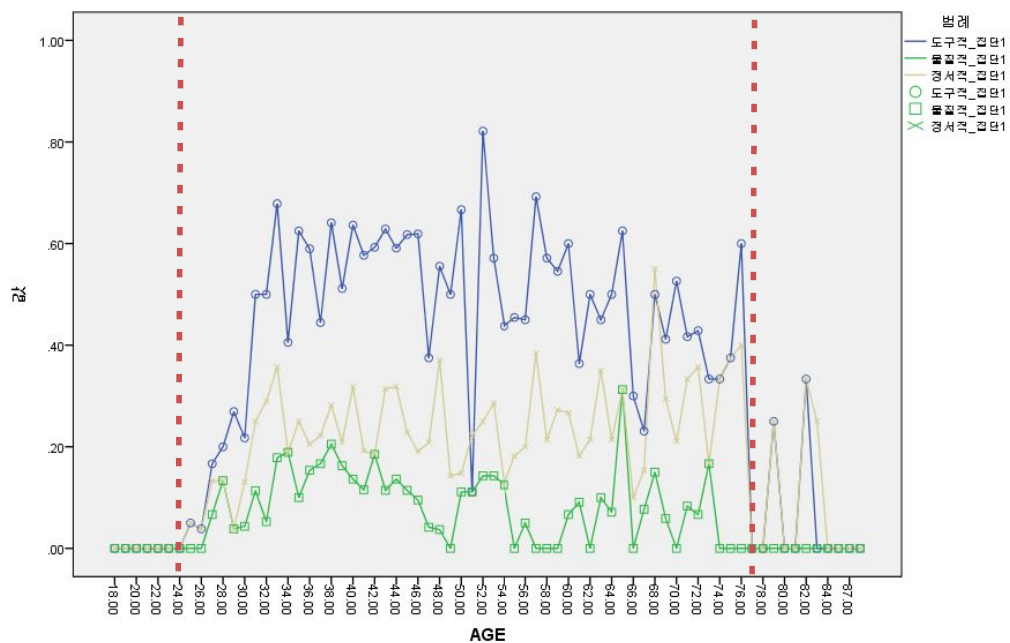
(1) 1단계: 연령 크게 묶기

이 절에서는 각 연령의 사람들이 7개 사회적 지원 집단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양상이 어떻게 다른가를 기준으로 연령 구간을 대략적으로 나눌 것이다. <그림 3-3>을 하나의 예로 먼저 보자. <그림 3-3>은 도구적 지원, 물질적 지원, 정서적 지원 영역에서 각 연령의 사람들 중 몇 퍼센트의

7) Wellman, 1994, "I was a Teenage Network Analyst: The Route from The Bronx to the Information Highway", Keynote Address to the International Sunbelt Social Network Conference, pp.4-5.

사람들이 중심 지원 집단(Cluster_1, 배우자)에게 도움을 청하는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3-3> 연령에 따른 배우자에 대한 지원 요청 변화



그래프의 ○표 선은 도구적 지원을 나타내고, □표 선은 물질적 지원, X표 선은 정서적 지원을 나타낸다. 18세~24세까지는 어떤 종류의 지원이든 상관없이 아무도 이 집단(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연령 구간에 혼인 인구가 없기 때문이다. 배우자에 대한 요청은 도구적 / 물질적 / 정서적 지원 영역 모두 24~26세를 기점으로 증가하고, 77세 즈음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24~26세와 77세 경에 구분 선을 그릴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확연히 드러나는 변화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후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검증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7개 집단에 각각의 패턴마다 연령 구분 선을 긋고, 이렇게 그려진 선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 3-8>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3-8> 지원을 요청하는 대상의 변화에 따른 연령 구분

연령	연령 집단 구분	경계선을 그은 이유		
		도구적 지원	물질적 지원	정서적 지원
18~24	1			
25~27	경계선	Cluster_1 (배우자)등장	Cluster_1 (배우자)등장	Cluster_1 (배우자)등장
28~31	2			
32~34	경계선	Cluste_4 (딸,이웃) 등장		Cluste_4 (딸,이웃) 등장
35~47	3			
48~50	경계선	Cluster_5 (아버지,아들, 남자형제 등) 감소	Cluster_5 (아버지,아들, 남자형제 등) 감소	Cluster_5 (아버지,아들, 남자형제 등) 감소
51~67	4			
68~70	경계선	Cluster_1 (기타항목) 증가		Cluste_4 (딸,이웃) 증가
71~76	5			
77,78	경계선	Cluster_1 (배우자) 감소	Cluster_1 (배우자)감소	
79~93	6			

위 <표 3-8> 의 구분에서 ‘경계선’으로 분류된 연령들은 사회적 지원을 요청하는 패턴에 두드러진 변화가 보이는 바로 그 지점에 해당하는 연령들이다. 경계선이 되는 연령들이므로 더 어린 연령 집단과 함께 묶어야 할지 더 나이 든 연령 집단에 함께 묶어야 할지는 여기서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2단계에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구간 내 동질성과 구간 간 차별성을 최대화하는 연령 구간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 <표 3-8>에서 묶어 놓은 연령들의 분류(사전집단)가 올바른 것이었는지도 검증할 수 있다.

(2) 2단계: 명확하게 선 긋기

지금까지 연령에 따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계 대상 집단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고, 그에 기초해 변화 지점들을 거칠게 잡아 놓았

다. 이 절에서는 그 경계선을 통계적으로 엄밀하게 그어보는 작업을 할 것이다. 판별 분석(Discriminant Analysis)은 사전에 정의된 집단들이 있을 때, 이 집단들을 서로 구분(판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판별 변수를 찾아주고, 이 판별 변수들의 값으로 판별 함수를 만들어 준다. 그리고 이 판별 함수는 사전에 정의된 집단 외에 새로운 사례가 등장했을 때, 이 새로운 사례를 그 사례의 판별 변수 값에 따라 기존의 집단 중에 가장 적합한 집단에 배정해준다(Klecka 1980).

따라서 위에서 대강 나누어 놓은 연령 집단을 사전 집단으로 설정하고, 판별 변수를 사용하여 판별 함수를 도출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 판별 함수에 따라 경계가 모호한 변화 연령들이 알맞은 연령 집단으로 귀속될 것이다. 또한 이 판별 함수는 이미 사전 집단으로 설정된 연령들에 대해서도 판별 함수값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예측 소속 집단을 도출해주므로, 위 1단계에서 구분한 사전집단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게 된다.

판별 분석에서 필요한 자료는 두 가지다. 사전 집단과 판별 함수를 구성할 변수들이다. 사전 집단은 위에서 구분한 <표 3-8>를 따를 것이다. 판별 함수를 구성할 변수 값들은 7가지 종류의 지원 집단을 실제 응답으로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 즉 {관계 대상 집단 n을 선택한 x세 응답자 수/x세 전체 응답자수}의 값을 사용한다. 이 값들은 사전 집단을 만드는 데 사용한 값이기도 하다. 7개 집단에 대한 비율이 3개의 지원 상황(도구적 지원/물질적 지원/정서적 지원)에서 각기 도출되므로 판별 변수는 총 21개(7개 집단×3개 지원상황)가 사용된다.

이렇게 21개의 판별 변수를 사용해 <표 3-8>의 사전 집단과 미분류 연령을 어느 연령 구간에 배치할 것인지 반복 분석을 통해 조정하면, 다음 <표 3-9>와 같은 최종 결과가 도출된다.

<표 3-9> 관별 분석으로 관별된 집단

연령	관별집단
18~26	1
27~30	2
31~39	3
40~67	4
68~76	5
77~9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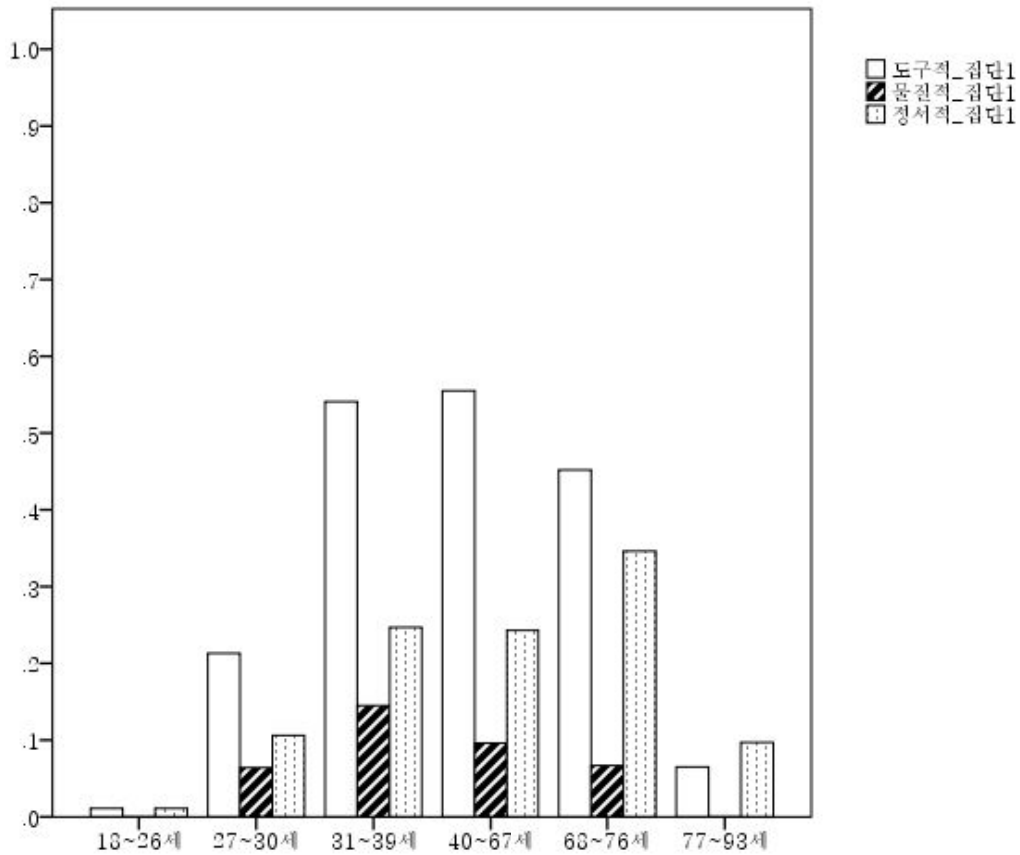
위 결과를 풀어보면, 2004년 18세 이상 한국인의 나이테는 총 여섯 겹이라고 말할 수 있다. 26세에서 27세로 넘어갈 때 한 겹을 더하고, 30세에서 31세로 넘어갈 때 또 한 겹을 더하는 식이다. 이렇게 나눈 연령 구분에 따르면, 20세~29세는 20대로 함께 묶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겹 나이테와 두 번째 겹 나이테로 각기 나뉘어야 하고, 40세와 50세, 60세는 각각 40대, 50대, 60대로 따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겹의 나이테로 함께 묶여야 한다. 이렇게 묶인 각 연령 구간이 각각 어떤 특성을 갖는가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다.

3. 해석: 그어놓은 선 읽기

여기서부터는 그어 놓은 선이 그 위치에 그어진 까닭을 읽어내는 작업을 하겠다. 이 읽기 작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질텐데, 하나는 이 절의 내용으로, 사람들이 나이테를 한 겹씩 더 두를 때마다 사회적 지원을 요청하는 사회 연결망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40세에서 67세에 이르는 긴 연령 구간이 하나의 구간으로 묶여 있으므로, 이 구간이 정말로 동질적인 구간인지를 확인해보는 작업을 덧붙이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다음의 4장 내용으로, 연령 구분 선을 위 결과와 같이 긋는 것이 사람들의 사회적 지원 요청 행태를 넘어서 여타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더 효과적임을 보일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7개의 사회적 지원 집단(Cluster_1~7)에 대해, ① 각 나이테 연령 집단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도움을 요청하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②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했다(<그림 3-4>~<그림 3-9>). 그래프는 앞의 <그림 3-3>을 그린 방식과 동일하게 구성한 것이다. 즉 X축은 연령(나이테 범주), Y축은 각 연령집단의 인구 중에서 해당 Cluster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다. 이 비율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도구적 지원, 물질적 지원, 정서적 지원)을 각각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래서 각 Cluster 별로 그려지는 7개의 그래프에는 3개 종류의 막대 그래프가 자리하게 된다. 이 3개의 막대 중 흰색 막대가 도구적 지원을 나타내고, 검은 사선 줄무늬 막대는 물질적 지원, 점 무늬 그래프는 정서적 지원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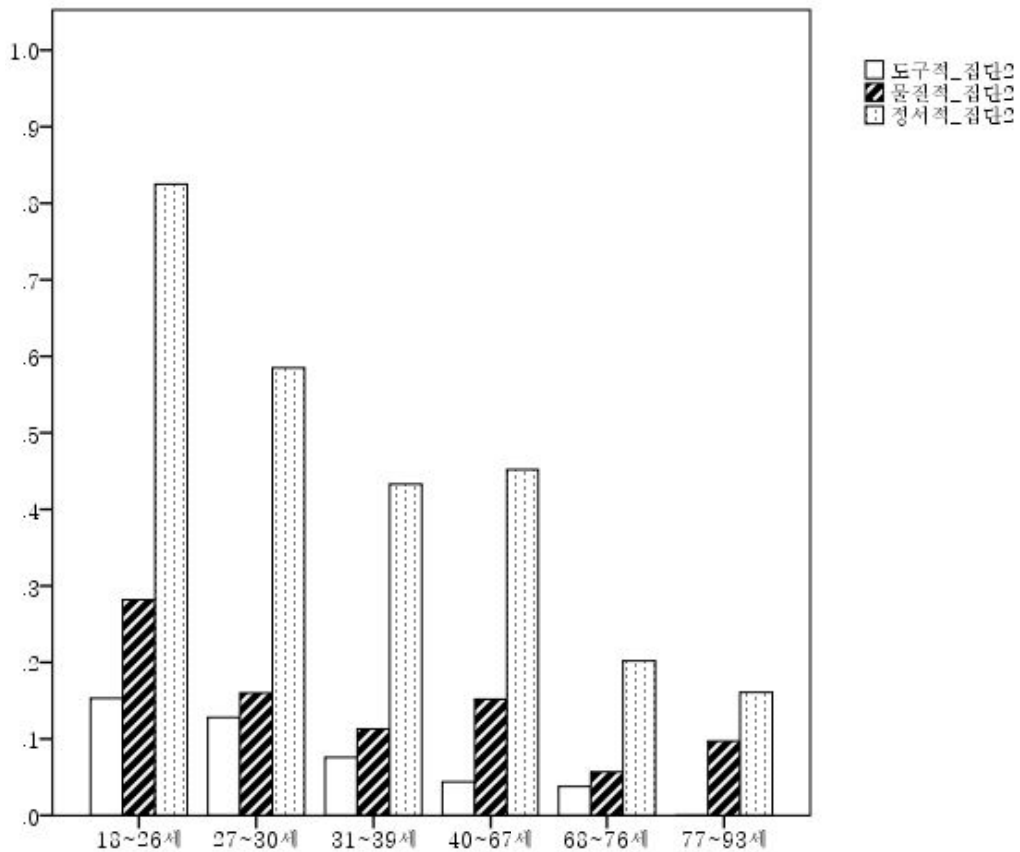
<그림 3-4> Cluster_1(배우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청의 변화



Cluster_1, 즉 배우자에 대한 지원 요청은 27세 이전에는 매우 미미하다가 27세 이후에 증가한다. 이는 여성의 경우 25세, 남성의 경우 27세부터 기혼자가 등장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지원 영역은 도구적 지원 영역(흰 막대)이다. 이 영역에서 배우자는 67세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68세~76세 구간에서 다소 감소하고, 77~93세 구간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배우자도 응답자와 함께 고령이 되면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배우자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다른 유형의 사회적 지원(딸, 아들, 며느리가 속한 각각의 집단)이 이 연령 구간에서 증가하여 감소한 부분을 채우는 것을 차후에 볼 수 있다. 물질적 지원(검은 사선 줄무늬 막대)은 전반적으로 낮

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부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질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배우자를 도움 받을 수 있는 외부 자원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정서적 지원(점 무늬 막대)은 부부 생활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은퇴 이후 시기인 68~76세 구간에서는 더 크게 늘어나는데, 이는 은퇴 이후에는 부부가 가정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77~93세 구간이 되면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크게 떨어지는데, 이는 이 구간이 배우자 사별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도구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도 이 구간에 이르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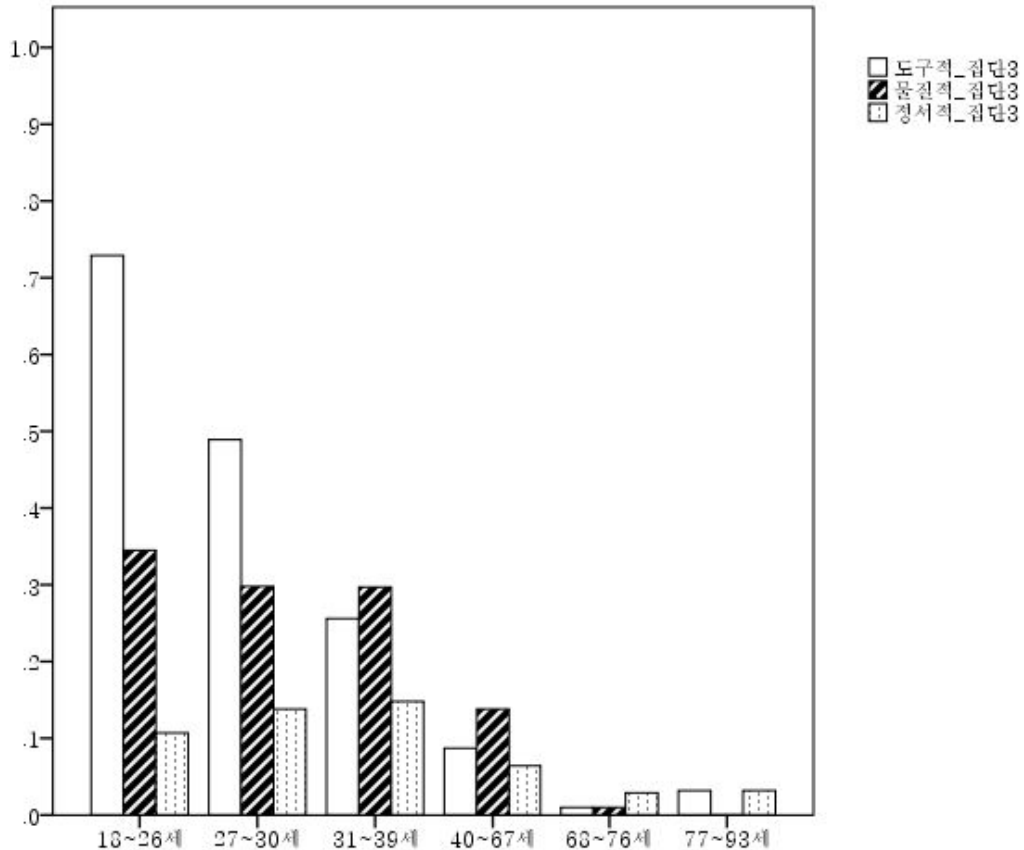
<그림 3-5> Cluster_2(친한 친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청의 변화



Cluster_2, 즉 친한 친구에 대한 지원 요청 비중은 전체적으로 어린 연령에서 가장 높다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친한 친구가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영역은 정서적 지원 영역(점 무늬 막대)이다. 특히 18~26세의 청년 시기에는 친구가 정서적 지원을 주는 매우 주요한 사회적 자원임을 알 수 있다. 친구는 상대적으로 도구적 지원(흰색 막대)은 별로 제공하지 않으며, 경제적 지원 영역(검은 사선 줄무늬 막대)에서도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또한 정서적 지원 영역에서의 친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생애 단계가 노년으로 갈수록 친구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Fischer and Oliner(1983)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고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친구와 연결된 관계망의 규모는 점차로 축소된다. 노년에 이르면 기존의 친구들이 죽으면서 수가 줄어들고, 직장에서의 은퇴와 사회활동의 제약 등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 기회도 줄어들어 친구 연결망의 규모는 더욱 작아진다. 위 그래프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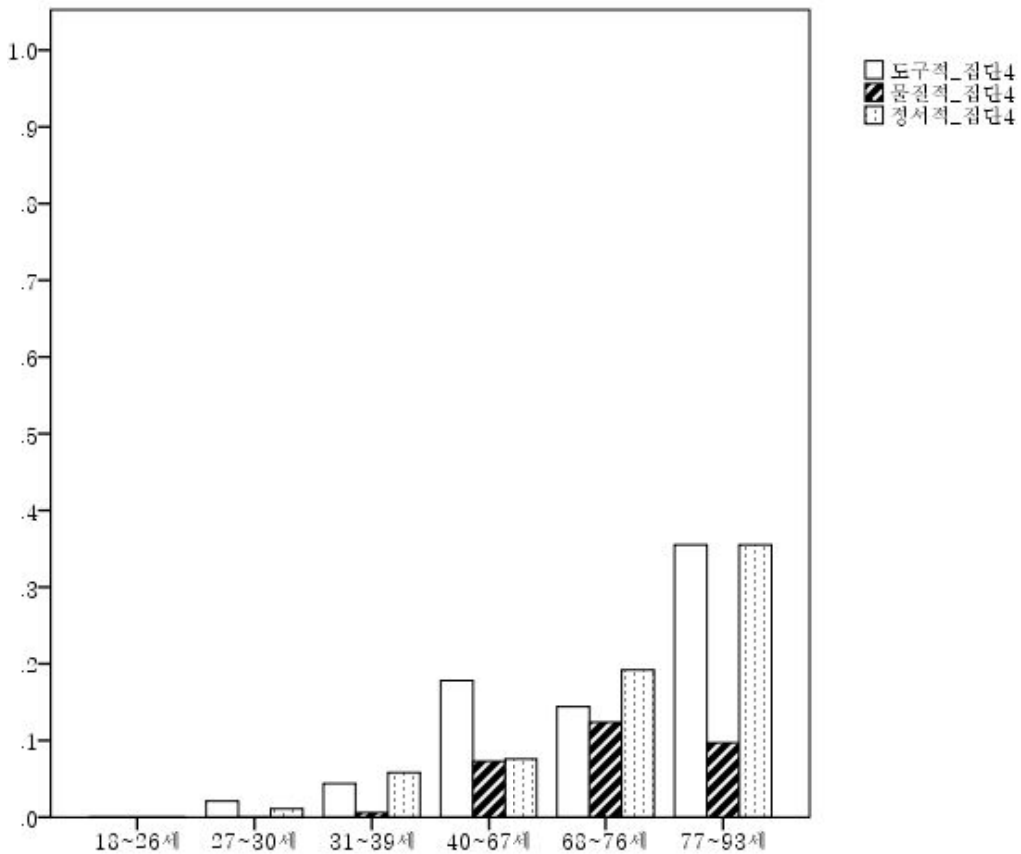
<그림 3-6> Cluster_3(어머니, 여자형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청의 변화



<그림 3-6>은 Cluster_3, 즉 어머니, 여자형제에 대한 지원 요청 비중이다. 정서적 지원(점 무늬 막대)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8세~26세 구간에서는 도구적 지원 영역(흰색 막대)에서 이 집단이 주요한 사회적 지원 제공처이지만, 배우자가 등장한 이후에는 그 비중이 점점 크게 떨어진다. 물질적 지원 영역(검은 사선 줄무늬 막대)에서의 지원 비율은 39세까지의 구간에서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지만, 40~67세 구간부터 크게 감소한다. 다른 지원 집단의 변화와 연결시켜 보면, 배우자와 어머니, 여자형제 집단은 이 구간에서 비중 감소를 보이는 데 비해, 그 외 모든 지원 집단의 지원 비율은 40~67세 구간에서 상승한다. 40~67세 구간에 이르면 다른 지원 집단들이 배우자와 어머니, 여자형제 집단의 지원 감소 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구적

지원 영역에서는 혼인과 동시에 어머니, 여자형제 집단으로부터의 지원에서 독립하지만, 물질적 지원 영역에서는 적어도 39세 구간까지는 이 집단에 의존함을 읽을 수 있다.

<그림 3-7> Cluster_4(딸, 이웃)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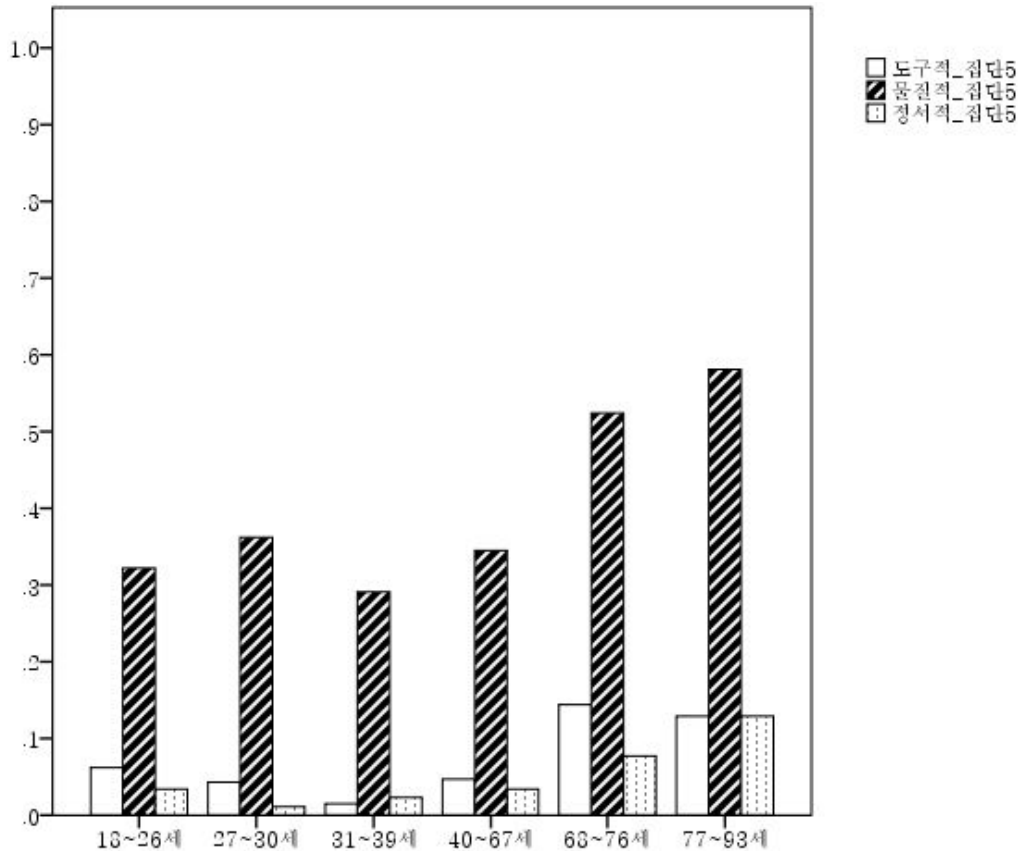
Cluster_4 (딸, 이웃)에 대한 지원 요청 비중은 27~30세 구간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까지 도달하지는 않지만 점차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27~30세 구간부터의 비율 증가는 자녀의 출산과 관계는 있지만, 딸의 등장 자체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9.98세이다.⁸⁾ 위 그래프의 증가 시작 구간과 일치하기는 하지만, 갓 태어난 자녀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출산 시기와 맞물려 증가하

기 시작하는 Cluster_4에 대한 도움 요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자녀의 존재는 이웃들과의 연결을 촉진시키기 때문에(Chevan 1982), 출산 연령에 즈음하여 딸, 이웃이 함께 묶인 Cluster_4가 출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Chevan(1982)은 사람들이 연령에 따라 선택하는 주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연령끼리 이웃을 이루는 연령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엔 ‘강남 8학군’이라는 말이 생기고, 교육 환경에 따라 집값 변동이 있을 만큼, 자녀(의 교육 환경)를 중심으로 주거 지역을 선택한다. 이는 해당 주거 지역에 동질적인 사람들, 특히 비슷한 학령(學齡)대의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이웃으로 모이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즉 자녀의 양육과 교육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졌을 뿐 아니라 가까이에도 살고 있는 이웃은 유용한 사회적 지원 자원으로 새롭게 떠오를 수 있다. 이것이 반영된 것이 그래프의 27~30세 구간에서 시작되는 증가 추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응답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30세 부근 연령의 응답자가 Cluster_4 집단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답한 경우는 모두 딸이 아니라 이웃을 골랐다.

8) 통계표ID, DT_1B81A20,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81A20&conn_path=I3&path=NSI

<그림 3-8> Cluster_5(아버지, 아들, 남자형제,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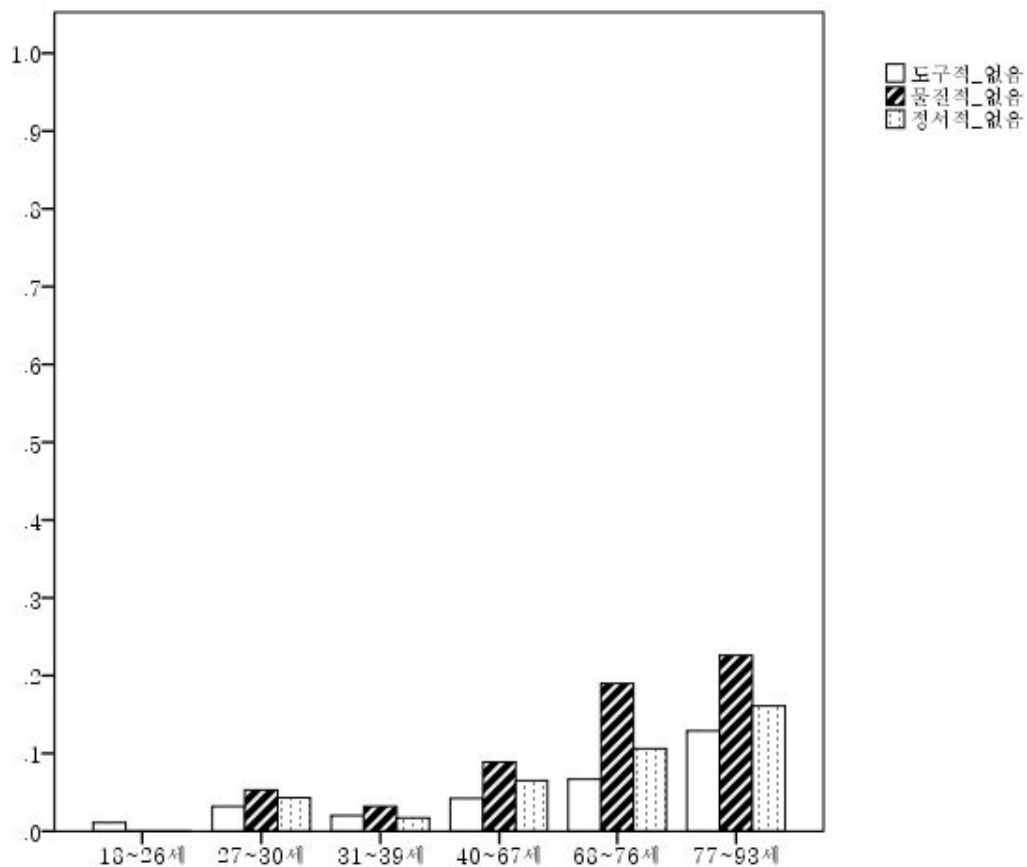


Cluster_5, 즉 아버지, 아들, 남자형제,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비중은 물질적 지원(검은 사선 줄무늬 막대)을 제외하고는 큰 비중이 없다. 물질적 지원은 위 <그림 3-6>의 Cluster_3(어머니, 여자형제)의 경우와 같이, 31~39세 구간까지 부모에게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40~67세 구간부터의 Cluster_5 비중의 증가를 분석해보면, 아버지를 선택한 응답자 수는 크게 줄어들고 아들/ 남자형제/ 은행 및 금융기관의 선택이 늘어 증가 추세가 이뤄진다. 도구적 지원(흰색 막대)에서 Cluster_5는 매우 낮은 비중을 보이기는 하지만, 68~76세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위 <그림 3-4>에서 배우자의 도구적

지원이 이 구간에서 줄어드는 것과 연결하여, 배우자가 지원하지 못하는 도구적 지원을 Cluster_5가 소폭 충당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순서는 Cluster_6과 7로, 이들은 주변층에 속하는 지원 유형들이다. 그런데 이 지원 유형들은 지원을 제공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여 전체적인 연령 구간 변화에 따른 변화도 거의 없다. 그리하여 그래프를 제시하지는 않겠다. 다만 사회적 지원을 요청할 대상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연령 구간 별 변화를 추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9>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연령 집단별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고령 구간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 연결망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회 연결망은 각 연령 구간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들의 생애주기의 다면적인 모습과 관련시켜 읽어낼 수 있다. 혼인, 자녀 출산, 은퇴 및 노화, 배우자 사별과 같은 생애주기 단계마다의 사건 뿐 아니라, 그 사건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지원 제공자의 변화와 그 생애주기 단계의 여러 모습(혼인과 출산 이후에 친구와의 교류는 줄어들지만 이웃과의 교류는 늘어나는 것,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경제적 지원 영역에서보다는 도구적 지원 영역에서 더 빨리 이뤄지는 것 등) 지원 연결망의 패턴을 매개로 연령 구분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결망을 생애주기와 관련지어 읽어낸 작업은 지원 연결망의 변화만을 분석하여 이뤄진 것이다. 연령 범주에 생애주기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합되는 것인지는 이 자체를 목적으로 한 독립적인 후속 연구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판별 분석으로 분류된 연령 구간의 길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연령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몇 해를 살았는가로 계산한다. 하지만 사람의 변화는 햇수 단위로 일어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갓 태어난 인간의 변화는 하루, 한 달 단위로 급격히 이뤄지기 때문에 날짜나 개월로 그 아이의 연령 상태를 이야기한다. 더 자란 아이들을 1년이나 학교 단위로, 더 자란 어른들은 40대, 50대 등의 단위로 연령 상태가 흔히 표시된다. 연령 구간의 길이에 해당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변화를 겪는가를 나타내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다. 다시 <표 3-9>를 참조하여 구분된 연령 구간의 길이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3-10>과 같다.

<표 3-10> 각 연령 구간별 시간 길이

연령 구간	연령 구간	구간 길이
1	18~26	9년
2	27~30	4년
3	31~39	9년
4	40~67	28년
5	68~76	9년
6	77~93	-

청년 시기에는 나이를 더 두르는 간격이 짧다. 특히 27~30세 기간이 매우 짧은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성인으로 자리 잡는 시기로, 앞·뒤의 여타 연령들과 구분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 기간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후에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속설처럼, 1년이라는 햇수가 연령 구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사회적 안정을 이루는 나이로 일컬어지는 40세 이후는 은퇴 연령인 65세 무렵까지 긴 시간동안 동질적인 구간을 이룸을 볼 수 있다. 은퇴 이후의 노년 기간은 68세~76세의 기간 동안 동질적이다가, 77세 이후에는 다른 단계로 변한다. 이러한 결과는 Neugarten(1974)이 노년층을 ‘젊은 노인’과 ‘늙은 노인’으로 나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와도 일치한다. Neugarten은 인간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도 길어지면서, 노년기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뤄진 기간이 아니라 ‘젊은 노인’과 ‘늙은 노인’으로 구분해서 파악해야 하는 기간임을 지적한 바 있다(Neugarten 1974). 이후 77세~93세 기간은 연령 구간의 분석 결과로 도출된 기간이 아니라, 조사 대상자 중 최고령이 93세이기 때문에 도출된 기간이므로 구간의 길이를 셈하지 않았다.

그런데 40세에서 67세에 이르는 구간이 다른 구간에 비해 매우 길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속하는 연령들의 동질성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구간의 동질성은 다음 장에서 연령 구획 전체의 타당성 검토에 사용할 분석틀과 같은 것을 사용해 확인할 것이다. 여기서 미리 다음 장의 분석틀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구간 내 동질성과 구간 간 차별성

은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차이의 비율로 집단 간 평균을 비교·검증하는 분산분석 분석에서 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KGSS 2004년 조사 문항 중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변수를 선택해, 그 변수에 대해 연령 범주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 분석 방법과 변수를 40세~67세 구간에 적용해, 이 구간의 연령들이 동질적인 연령들로 이뤄졌는가를 살펴 보려고 한다. 먼저 40세~67세 구간을 하위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 때 하위 집단은 10년 단위 연령으로 나누었을 때 나뉘게 되는 연령 집단 또는 5년 단위 연령으로 나누었을 때 나뉘게 되는 연령 집단이다. 이들 하위 집단이 여러 준거 변수에 대해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함으로써 40세~67세 구간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행한 사회 연결망에 따른 연령 구분은 18세에서 93세에 이르는 전체 연령들을 바탕으로 각 연령들 간의 상대적 거리에 따라 집단을 묶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구간만을 분리하여 그 안에서의 연령을 다시 나뉘 차이 검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40세~67세 구간만을 대상으로 한 하위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고, 분석 결과 하위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날 경우는 다음 장의 전체 연령 구간 분석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분석할 준거 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정치적 태도, 사회적 지원 행위, 사회적 지원 태도이다. 각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각 변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아래 <표 3-11>)와 해석만을 제시하려 한다.

<표 3-11> 40세~67세 구간 내 하위 집단 간 차이 분석:
 분산분석 결과⁹⁾

1. 정치적 태도: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분산 가정 충족 (p>0.05 이면 충족)	F 값	유의확률
AGE10_1	0.29	0.10	0.91
AGE10_2	0.16	0.58	0.63
AGE05	0.32	0.44	0.82
2. 사회적 지원 행동: 지난 12개월 동안 귀하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어느 정도 자주 하셨습니까?			
1) 집안일이나 장보기를 도와줌			
	등분산 가정 충족 (p>0.05 이면 충족)	F 값	유의확률
AGE10_1	0.24	0.41	0.66
AGE10_2	0.56	0.14	0.94
AGE05	0.67	0.19	0.97
2) 큰 돈을 빌려줌			
	등분산 가정 충족 (p>0.05 이면 충족)	F 값	유의확률
AGE10_1	0.00	6.68	0.00
AGE10_2	0.00	5.96	0.00
AGE05	0.00	3.86	0.00
3) 직장 구하는 것을 도와줌			
	등분산 가정 충족 (p>0.05 이면 충족)	F 값	유의확률
AGE10_1	0.41	1.52	0.22
AGE10_2	0.43	1.46	0.23
AGE05	0.59	1.04	0.39
4) 낙심하거나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눔			
	등분산 가정 충족 (p>0.05 이면 충족)	F 값	유의확률
AGE10_1	0.34	1.94	0.15
AGE10_2	0.28	1.66	0.17
AGE05	0.44	1.05	0.39

(<표3-11> 다음 쪽에 계속)

9) 각 하위 단위 집단의 연령 구분은 다음과 같다.

AGE10_1	40~49 세/50~59 세/60~67 세
AGE10_2	40~44 세/45~54 세/55~64 세/65~67 세
AGE05	40~44 세/45~49 세/50~54 세/55~59 세/60~64 세/65 세~67 세

(<표 3-11> 앞 쪽에 이어서)

3. 사회적 지원 태도: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찬성/반대하는가?			
1) 노부모 부양: 성인이 된 자녀는 노부모를 돌볼 의무가 있다.			
	등분산 가정 충족 (p>0.05 이면 충족)	F 값	유의확률
AGE10_1	0.48	0.00	0.10
AGE10_2	0.89	0.61	0.61
AGE05	0.72	0.51	0.77
2) 가족 우선시: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과 가족을 보살펴야 한다.			
	등분산 가정 충족 (p>0.05 이면 충족)	F 값	유의확률
AGE10_1	0.18	1.04	0.35
AGE10_2	0.09	3.24	0.22
AGE05	0.03	2.68	0.02
3) 친구 형평성: 형편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등분산 가정 충족 (p>0.05 이면 충족)	F 값	유의확률
AGE10_1	0.73	1.18	0.31
AGE10_2	0.81	0.75	0.53
AGE05	0.72	1.15	0.33
4) 우정의 이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를 사귀어도 괜찮다.			
	등분산 가정 충족 (p>0.05 이면 충족)	F 값	유의확률
AGE10_1	0.65	2.21	0.11
AGE10_2	0.47	0.81	0.49
AGE05	0.55	0.94	0.46

<표 3-11>에 나타난 위 결과를 보면 2-2) ‘큰 돈을 빌려줌’ 항목 전체와 3-2) ‘가족 우선시’ 항목 중 AGE05 집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표에 제시된 F값과 유의확률을 바탕으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할 수 있다.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40세~67세 구간이 많은 연령을 포함하는 긴 구간이지만, 구간 내 동질성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등분산을 가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보수적으로 사용되는 ‘Tamhane의 T2’ 분산분석을 시행해보면 2-2) ‘큰 돈을 빌려줌’ 항목들과 3-2) ‘가족 우선시’-AGE05 항목은 영가설을 기각한다. 그러나 ‘가족 우선시’ 항목은 사후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2-2)의 세 항목이 모두 영가설을 기각하면서 사후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하위 집단들을 보인다. 돈을 빌려주는 경제적 지원 행위는 다음 장의 분석에서도 사회 연결망에 따른 연령 구분이 다른 연령 구분에 비해 더 나은 분석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이 절에서의 결과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살펴보겠지만, 사회 연결망에 따른 연령 구분은 분석 대상과 맥락에 따라서는 더 뛰어난 설명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구 분석에 앞서 이론적 기반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연령을 재구성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더욱 명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상으로 분석 결과로 그어진 연령 구분 선을 읽는 작업을 마치겠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그어 놓은 선이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연령을 구분했는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10년 혹은 5년 단위의 범주 구분과 분석 결과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연구의 연령 구분 선을 읽어보겠다.

4장. 제품 시험

1. 시험 방법

이 장은 이 연구에서 구획한 연령 범주가 10년 혹은 5년 단위로 나누는 연령 범주보다 더 나은 것인지를 시험하고자 한다. 연령을 묶을 때 어떻게 묶어야 효과적인가? 같은 범주의 연령은 서로 동질적이어야 하고, 다른 범주의 연령들과는 차별적이어야 한다. 즉 10년 단위로 묶여 있는 연령 범주에서 한 범주 안의 연령들이 동질적인 정도보다, 위에서 나눈 연령 범주 안의 연령들이 동질적인 정도가 더 높아야 하고, 다른 범주 안의 연령들과 이질적인 정도도 더 높아야 한다.

이러한 구간 내 동질성과 구간 간 차별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산분석은 여러 집단들 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여기서는 각 연령 범주 집단들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가를 검증할 것이다. 특히, 분산 분석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보기 위해 사용하는 F값은 집단 내 분산을 집단 간 분산 값으로 나눈 값이므로, 집단 간의 차별성은 크고, 집단 내의 차별성은 작을수록(집단 내 동질성이 클수록) 그 값이 커지고, 이 값이 충분히 클 때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틀은, 기존의 연령 구분을 집단 내 동질성과 집단 간 차별성을 실증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구분이 되도록 보완/수정하겠다는 이 연구의 목적에 그대로 일치한다.

비교 준거로 쓰일 종속 변수는 1) 정치적 태도(진보/보수적인 정도), 2) 사회적 지원 제공 행위의 정도 3) 가족과 친구에 대한 가치관(혹은 사회적 지원 태도)이다. 각 변수는 연령의 변화가 관계가 있음이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고(Feld L., Suitor, and Hoegh 2007), 연령 범주 구분에 쓰인 KGSS 조사 문항과 함께 포함되어 조사된 문항들이기도 하여 일관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즉 분석 결과 도출한 새로운 연령 범주, 기존의 연령 범주, 비

교 준거 변수가 서로 다른 모집단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없이 같은 모집단을 바탕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 분석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를 확인하려 한다. 첫째는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앞서 구분한 연령 범주가 각 준거변수에 대해 구간 내 동질성과 구간 간 차별성을 만족시키는가를 확인할 것이다. 즉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둘째는 같은 분석을 다른 연령 범주에 대해 시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이 연구에서 구획한 연령 범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려고 한다. 비교할 연령 범주의 틀은 4가지로, 차례로 ‘10대(18,19세)/20대/30대…’의 구분(AGE10_1), ‘18~24세/25~34세/35~44세/…’(AGE10_2)의 10세 단위 구분과 ‘18~19세/20~24세/25~29세/…’의 구분(AGE05), 이 연구에서 도출한 연령 구분 ‘18~26세/27~30세/…’(나이테)이다. 앞서 2장 1절에서 기존의 연령 구분 방식을 살펴보면서 논의했듯이, 세대 구분이나 인구학적 연령 구분은 비교에서 제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간 생애 변화의 리듬과 단위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령 범주를 제시하기 위해, 사회 연결망의 변화를 사용하여 연령 범주를 구획하는 것이다. 인구학적 연령 구분은 기준과 범주 체계가 단순하다는 제약이 있지만, 그 근거가 명확하다. 세대 구분은 연령의 변화보다는 특정 시기에 특정 사건을 경험한 집단을 범주로 하는 구분으로, 전 범위 연령 구간을 포괄하여 범주를 구획하고자 하는 시도와는 맥락을 달리 한다. 또한 범주의 기준이 세대 이론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의 비교에서 제외한다. 물론 이 기준 역시 실증적 기반이 부족하여 경험적 연구 및 체계화가 요청되고 있지만(박재홍 2001; 전상진 2002),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는 분석이다. 또한 학자들에 따라서는 세대 개념이 생성되지 않은 연령대가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에(정진민 1992, 박재홍 2005에서 재인용) 전체 연령을 빠짐없이 포괄하는 범주 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10년 혹은 5년 단위로 구획된 연령 범주만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2. 시험 결과

(1) 정치적 태도

‘진보적이다 혹은 보수적이다’고 표현되는 정치적 태도는 연령의 변화와 관계가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박명호 2012). 대표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 되어 간다는 것이 그러한 사실이다. 그래서 언론이나 정치적 태도, 행위, 견해를 조사하는 많은 연구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로 나뉘는 세대 범주를 많이 사용한다. 여기서는 사회 연결망으로 재구성한 이 연구의 연령 범주가 각 범주 집단 간 정치적 태도 차이를 다른 연령 범주에 비해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가. 사용 문항에 대한 기술

다음 <그림 4-1>은 2004년 KGSS 조사에서 응답자에게 정치적 태도를 묻는 문항이다.

<그림 4-1> 정치적 태도를 묻는 해당 설문 문항

17.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매우 진보적	___ ④ 다소 보수적
___ ② 다소 진보적	___ ⑤ 매우 보수적
___ ③ 중도	___ (8) 선택할 수 없음

이 문항을 중도를 기준으로 진보와 보수가 반대의 값을 갖게 하기 위해 중도를 0으로, 매우 진보적은 2, 다소 진보적은 1, 다소 보수적은 -1, 매우 보수적은 -2의 값을 주었다. (8) 선택할 수 없음 응답지는 결측 처리했다. 이 문항 응답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다음 <표 4-1>와 같다.

<표 4-1> 정치적 태도 응답에 대한 기술 통계

정치적 태도	빈도	퍼센트(%)
매우 보수적	40	3.1
다소 보수적	408	31.3
중도	363	27.9
다소 진보적	363	27.9
매우 진보적	51	3.9
유효 합계	1225	94.1
결측값	77	5.9
총 합계	1302	100

나. 분석 결과

분석은 정치적 태도가 각 연령 범주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산분석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각 연령 범주 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2>와 같다.

<표 4-2> 정치적 태도에 대한 연령 범주 집단 차: 분산분석 결과

정치적 태도 (보수, 중도, 진보 성향 정도)					
	등분산 가정 충족 (유의확률>0.05이면 가정 충족)	집단 간 자유도	F값	유의확률	유의수준 0.05에 대한 부집단 개수
AGE10_1	0.04	7	3.30	0.00	-
AGE10_2	0.13	7	3.75	0.00	1
AGE05	0.14	13 ¹⁰⁾	2.30	0.00	1
나이테	0.08	5	5.51	0.00	2

AGE10_1의 연령 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 범주들은 모두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며, F값이 영가설(모든 연령 범주 집단의 평균이 같다)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각할 만큼 충분히 크다. 값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AGE10_1의 연령 범주도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분석을 시행하면 통계적

10) AGE05는 마지막 두 연령구간(85~89세/ 90~93세)에서 정치적 태도에 대해 응답한 사례 수가 1이하인 집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 마지막 두 연령구간은 제외였다.

으로 유의하게 영가설을 기각한다. 동질적인 연령은 같은 범주로, 차별적인 연령은 다른 범주로 나누겠다는 분석의 목적에 부합하게 구간이 구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 간 자유도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나이테 범주의 F값이 가장 크다. F값은 집단 내 분산을 집단 간 분산 값으로 나눈 값이므로, 집단 간의 차별성은 크고, 집단 내의 차별성은 작을수록(집단 내 동질성이 클수록) 그 값이 커진다. 또한 사후분석¹¹⁾을 통해 연령 범주 집단 별 다중 비교를 수행하면, 다른 연령 범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 쌍이 도출되지 않지만, 나이테 연령 범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 쌍(27세~30세 대 40~67세, 68~76세)이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27~30세가 가장 진보적이고,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 됨을 보인다. 다만 18~26세 구간은 진보적이기는 하지만 27세~30세나 31~39세 집단에 비해서는 진보적인 정도가 낮았다.

(2) 사회적 지원 제공 행위의 정도

사회적 지원 제공 행위에 대한 변수는 응답자가 자신의 연결망에 있는 사람들 -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 - 에게 집안일을 돕거나 돈을 빌려주는 등의 사회적 지원을 얼마나 많이 제공하는가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 제공 행위 역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위치에 의해 그 행위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서 분석에서 사용한 사회 연결망이 응답자(ego)가 연결망의 다른 행위자들(alter)로부터 지원을 제공받기만 하는 일방향의 사회적 지원망이었다면, 이 변수를 통해서도 응답자가 다른 행위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반대 방향의 사회적 지원을 관찰할 수 있다. 비록 이 연구의 주 분석대상 문항과 같은 형태로 사회 연결망을 구성할 수 없는 형태인 것이 한계이기는 하지만, 응답자가 지원을 받기만 하는 일방향 사회적 지원망을 통해 연령 구간을 구획했다 하더라도, 응답자가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의 행위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11) 등분산이 가정된 경우, SPSS 프로그램(버전 20)이 지원하는 사후분석 방법 중 가장 보수적으로 사용되는 'Scheffe' 방법을 사용하였다.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엔 해당 분석 방법 중 가장 보수적으로 사용되는 'Tamhane의 T2'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 사용 문항에 대한 기술

다음 <그림 4-2>는 2004년 KGSS 조사에서 응답자에게 사회적 지원 제공 행위의 정도를 묻는 문항이다.

<그림 4-2> 사회적 지원 제공 행위의 정도

63. 지난 12개월 동안 귀하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친척, 친구, 이웃 또는 친지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어느 정도 자주 하셨습니까?

	1주일에 한번 이상	1주일에 한번	1달에 한번	1년에 두세 번 이상	1년에 한 번	전혀없음
1) 집안일이나 장보기를 도와줌	①	②	③	④	⑤	⑧
2) 큰 돈을 빌려줌	①	②	③	④	⑤	⑧
3) 낙심하거나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눔	①	②	③	④	⑤	⑧
4) 직장 구하는 것을 도와줌	①	②	③	④	⑤	⑧

이 문항은 사회적 지원 행위의 빈도를 통해 지원 행위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면서, 그 빈도를 '1주일에 한번 이상'에서 '1년에 한 번'의 범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에 점차로 빈도가 줄어드는 카테고리의 변화를 10점 척도로 변환하여 각 응답에 점수를 부여했다. 부여된 점수는 아래 <표 4-3>와 같다.

<표 4-3> 문항 응답에 따른 점수 부여

응답 유형	점수
없음	0
1년에 한번	1
1년에 두세번 이상	2
1달에 한번	4
1주일에 한번	8
1주일에 한번 이상	10

나. 분석 결과

분석은 정치적 태도 변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산분석을 시행했다. 사회적 지원 행위 변수는 '낙심하거나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눔'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아래에는 등분산 가정을 충족한 변수의 결과와 해석을 먼저 <표 4-4>로 제시

하고, 남은 변수들은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가장 보수적으로 사용하는 ‘Tamhane의 T2’식 분산 분석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표 4-5>로 제시할 것이다.

<표 4-4> 사회적 지원 행위에 대한 연령 범주 집단 차:
등분산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 지원 행위: 지난 12개월 동안 귀하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어느 정도 자주 하셨습니까?					
3) 낙심하거나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눔					
	등분산 가정 충족 (유의확률>0.05이면 가정 충족)	집단 간 자유도	F값	유의확률	유의수준 0.05에 대한 부집단 개수
AGE10_1	0.11	7	6.79	0.00	3
AGE10_2	0.32	7	4.86	0.00	1
AGE05	0.18	14	4.40	0.00	1
나이테	0.49	5	8.83	0.00	3

<표 4-4> 역시 나이테 연령 범주를 포함한 모든 연령 범주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도 나이테 범주의 F값이 가장 큰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사후분석을 시행해보면 AGE10_1 범주와 나이테 연령 범주가 유의수준 0.05에 대한 부집단 개수가 가장 많음을 볼 수 있다. 즉 이들 범주가 이 변수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이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비교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대화를 나누는 정서적 지원 행위의 정도가 적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표 4-5>는 사회적 지원 행위를 구성하는 문항 중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문항에 대해 Welch F값을 사용하는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값이다. ‘Tamhane의 T2’식 사후분석 결과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 범주 내 집단 차이만을 확인하겠다.

<표 4-5> 사회적 지원 행위에 대한 연령 범주 집단 차:
이분산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 지원 행위: 지난 12개월 동안 귀하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어느 정도 자주 하셨습니까?			
1) 집안일이나 장보기를 도와줌			
	Welch F값	집단 간 자유도	유의확률
AGE10_1	9.36	7	0.00
AGE10_2	12.84	7	0.00
AGE05	13.58	13	0.00
나이테	9.04	5	0.00
2) 큰 돈 빌려줌			
	Welch F값	집단 간 자유도 ¹²⁾	유의확률
AGE10_1	12.81	7	0.00
AGE10_2	28.17	6	0.00
AGE05	3.82	11	0.00
나이테	26.35	5	0.00
4) 직장 구하는 것을 도와줌			
	Welch F값	집단 간 자유도	유의확률
AGE10_1	19.92	7	0.00
AGE10_2	11.25	7	0.00
AGE05	12.78	13	0.00
나이테	27.67	5	0.00

다른 연령 범주를 포함하여, 나이테 연령 범주도 범주별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한다. 나이테 연령 범주의 사후분석 결과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집안일이나 장보기를 도와주는 지원 행위는 고령이 될수록 줄어든다. 특히 68~76세가 그 이하 연령의 모든 집단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큰 돈을 빌려주는 지원 행위 역시 고령이 될수록 줄어든다. 특히 77~93세가 그 이하 연령의 모든 집단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67세 이하 연령 집단들은 27~30세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68세 이상 집단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4) 직장 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지원 행위도 고령이 될수록 줄어든다. 이 변수에서도 68세 이상 연령 집단들이 이하 모든 연령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12) 이 변수에서는 고령 집단에서 분산이 0이 되는 집단이 존재해 분석을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령 집단 일부를 결측 처리한 후 분석을 시행했다. AGE10_2의 경우 85~94세 집단을, AGE05의 경우 80~84세와 75~79세 집단을 이 변수 분석에 한하여 결측 처리하였다.

한 가지 덧붙여 앞 장 <표 3-11>에서 분석했던 40~67세 구간 내 하위 집단 차이와 연결 지어 사후분석 결과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집안일이나 장보기를 도와주는 지원 행위와 4) 직장 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지원 행위의 경우에는 40~67세 기간에 해당하는 연령 집단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2) 큰 돈을 빌려주는 지원 행위에서는 AGE10_1의 경우 40~67세 기간에 해당하는 연령 집단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0~49세 집단과 60~69세 집단은 나이테 범주에 따르면 다른 구간이지만, AGE10_1의 연령 범주를 사후분석(다중비교)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40~67세 구간만을 따로 떼어놓고 하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는 AGE10_2, AGE05의 연령 범주의 해당 집단들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던 데 반해, 이 절의 사후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3)절의 분석 변수들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도출됐다. 적어도 이 연구의 범위에서는 40~67세 구간이 동질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가족과 친구에 대한 가치관

가족과 친구에 대한 가치관 역시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 어렸을 때는 친구 집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난 후에는 자신의 가족이 우선시 되는 심리적 발달 단계 때문이기도 하고,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가 연령별로 변하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엄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개념적 문항은 아니지만, 가족과 친구에 대한 네 가지 가치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문항을 사용해, 연령 구간 별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해보겠다.

가. 사용 문항에 대한 기술

다음 <그림 4-3>은 2004년 KGSS 조사에서 응답자에게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특정한 가치관을 표현한 문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이다.

<그림 4-3> 가족과 친구에 대한 가치관

66. 다음의 의견들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선택할 수 없음
1) 성인이 된 자녀는 노부모를 돌볼 의무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다른 사람들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과 가족들을 보살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형편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를 사귀어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⑥

이 문항은 부모, 가족, 친구에 대해 서술한 네 가지 문장에 대해 응답자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를 매우 찬성에서 매우 반대까지 5개 범주로 응답을 측정하였다. 찬성도 반대도 아님을 0점으로 하여, 매우 반대에 -2점, 다소 반대에 -1점, 다소 찬성에 1점, 매우 찬성에 2점을 부여하여 분석을 시행했다.

나. 분석 결과

이 항목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분산분석을 시행했다. 각 연령범주 틀 별 분석 결과는 다음 페이지의 <표 4-6>과 같다. <표 4-6>에 제시된 값을 보면, 두 개의 경우(가족 우선시 항목에서 AGE10_2와 AGE05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표에 제시된 F값과 유의확률 및 유의수준에 대한 부집단 개수를 해석하고,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Welch' 분산분석 시행 결과를 해석과 함께 제시하겠다(값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1)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는 AGE10_2를 제외하고 모두 영가설을 기각한다. F값은 나이테 범주가 가장 크지만,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 수준에서의 부집단 개수는 AGE05 범주가 가장 많다. 2)가족을 우선시 하는 태도에서는 모든 연령 범주가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Welch' 분산분석을 시행했는데, 이 시행 결과에서도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즉 이 가치관은 연령 구간 별로 차이가 없다. 3)형편이 좋은 사람이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태도는 모든 연령 범주가 영가설을 기각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이테 범주가 가장 큰 F값과 유의수준에 대한 부집단 개수를 보였다. 4)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를 사귀어도 괜찮다는 태도는 AGE10_2를 제외하고 모두 영가설을 기각한다. 다만 이 항목에서는 나이테 범주가 가장 큰 F값을 갖지 않는다.

<표 4-6> 가족과 친구에 대한 가치관의 연령 집단 차이: 분산분석 결과

3. 가족과 친구에 대한 가치관: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찬성/반대하는가?					
1) 노부모 부양: 성인이 된 자녀는 노부모를 돌볼 의무가 있다.					
	등분산 가정 충족 (유의확률>0.05이면 가정 충족)	자유도	F값	유의확률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개수
AGE10_1	0.50	7	3.25	0.00	1
AGE10_2	0.55	7	1.59	0.14	-
AGE05	0.21	14	2.03	0.01	2
나이테	0.60	5	3.70	0.00	1
2) 가족 우선시: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과 가족을 보살피야 한다.					
	등분산 가정 충족 (유의확률>0.05이면 가정 충족)	자유도	F값	유의확률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개수
AGE10_1	0.07	7	0.84	0.56	-
AGE10_2	0.03	7	1.69	0.11	-
AGE05	0.03	14	1.43	0.13	-
나이테	0.06	5	0.44	0.82	-
3) 친구 형평성: 형편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등분산 가정 충족 (유의확률>0.05이면 가정 충족)	자유도	F값	유의확률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개수
AGE10_1	0.13	7	8.47	0.00	2
AGE10_2	0.14	7	7.75	0.00	1
AGE05	0.40	14	4.74	0.00	1
나이테	0.12	5	11.53	0.00	3

(<표4-6> 다음 쪽에 계속)

(<표 4-6> 앞 쪽에 이어서)

4) 우정의 이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를 사귀어도 괜찮다.					
	등분산 가정 충족 (유의확률>0.05이면 가정 충족)	자유도	F값	유의확률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개수
AGE10_1	0.46	7	2.68	0.01	1
AGE10_2	0.11	7	1.61	0.13	-
AGE05	0.13	13	1.91	0.03	1
나이테	0.18	5	2.34	0.04	1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정리하면, 나이테 연령 범주는 대체로 구간 내 동질성과 구간 간 차별성을 만족시키며 다른 등간격 연령 범주에 비해 그 차이를 드러내는 데 있어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이테 연령 범주가 모든 변수에서 가장 우수한 분석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또한 확인하였다. 그리고 AGE10_1 범주와 AGE10_2 범주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 똑같은 10년 단위의 등간격 범주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분석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했다. 이는 연령 범주 구분에 주의를 기울여 연구의 목적과 분석 대상의 특성에 알맞은 연령 범주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일깨워준다.

5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이론적·방법론적 기반 없이 범주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Burt(1991)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하여, 구간 내 동질성과 구간 간 차별성을 실증적으로 충족하는 연령 범주를 구획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원망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사회 연결망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고, 어떤 변화 지점에 경계를 그을 것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 서로 다른 종류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에 따라 크게 중심층, 중간층, 주변층으로 구조화된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다. 배우자와 친한 친구는 사회적 지원망의 중심층에서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배우자는 집안일과 같은 일상적 생활에서의 도구적 지원을, 친구는 우울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같은 정서적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부모, 자식, 형제들은 지원 제공의 중간층에 머무르면서, 성별에 따라 다른 역할을 맡고 있었다. 어머니와 여자형제는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아버지, 아들, 남자형제는 물질적 지원을 주로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을 요청하는 대상들 자체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2004년 평균 혼인연령기인 25~27세 경에 등장하여 사회적 지원망의 중심층을 이루다가 74세 이후에는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것은 응답자와 함께 배우자도 고령이 되어 제공 가능한 사회적 지원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고령에 따른 지원 자원의 고갈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응답이 비슷한 시기에 증가하는 것으로부터도 읽을 수 있다. 친구는 사회적 지원망의 중심층을 이루기는 하지만, 18세~19세의 어린 나이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점차로 감소한다. 어렸을 때야 친구가 가장 중요하지만, 나이

가 들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서 친구와는 예전만큼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생애 주기 행태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모님의 지원, 특히 물질적 도움은 39세 이후부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대신 자녀의 지원이 등장하기 시작해 고령이 될수록 증가하는 것 또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 연결망의 구성이 동질적인 연령들을 하나의 연령 범주로 묶어 재구성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결과다. 재구성한 연령 범주는 정치적 태도나 사회적 지원 행위와 가치관이 나이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10세 단위나 5세 단위의 연령 범주의 틀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해냈다. 그와 함께 하나의 연령 범주가 모든 분석 대상에서 가장 우월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연령 범주도 모든 분석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틀은 아니다. 그러나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경험적 자료에서 연령의 의미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에 맞는 연령 범주를 실증적으로 설정하는 것의 필요성과 그 효과, 그리고 실용적 가능성을 보였다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관점을 달리하여 본다면, 이러한 연령 독해법을 한국인의 생애주기 변화를 읽어내는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생애주기란 것은 한 종류의 경험 축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면서도 각기 독립적인 경력이나 궤적(성장, 취직, 결혼, 출산 등)으로 이뤄지는 다차원적 개념이다(Elder 1985). 만약 이 다차원적 생애주기 단계를 실증적 분석 틀에 알맞게 조작화하려 한다면 연령 이외에도 취업 여부,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 그 차원 수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변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애주기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로서의 사회연결망 변화에 따라 연령을 재구성한다면, 이렇게 구성된 연령 범주만으로도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연구에서의 연령 구분은, 생애주기를 이루는 복합적인 변화를 사회 연결망이라는 이론과 경험 자료를 통해 하나로 꿰어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 준다. 이러한 지점은 다음 절의 연구의 한계 및 더 나아갈 방향과도 연결된다.

2. 연구의 한계 및 더 나아갈 방향 제시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크게 세 가지 한계가 있으며, 이를 발전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짚고자 한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사회 연결망이 변하는 중요한 기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의 연령 규범 및 구조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생애 주기 단계의 변화이다. 그런데 이 생애 주기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Schnittger and Bird 1990; Yee 2000). 또한 성별에 따라 사회 연결망이 구성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난다(Ibarra 1992; Fischer and Olicker 1983). 이 연구 결과에서도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계 대상이 어머니, 여자형제/ 아버지, 아들, 남자 형제,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 나뉘어 나온 것도 이러한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별을 분리하여 각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같고 다른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 대상이 된 자료의 조사 시점에서 오는 한계다. 연령 구조는 그 사회 고유의 연령 규범, 역사적 경로 등에 의해 사회마다 다르며, 같은 사회라도 시대마다 변화한다(Elder 1975; Neugarten 1996). 2004년은 약 10년 전 조사 자료로서, 그동안 한국 사회의 연령 규범, 연령 구조, 그에 따라 연령별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의 양식과 사회 연결망 등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연구에서 도출한 연령 범주는 지금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자료로 업데이트해 다시 같은 분석을 시행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¹³⁾ 이런 분석의 반복과 비교를 통해 보다 안정된 연령 범주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 2004년이라는 한 시점에서 관찰된 연령의 특성이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생긴 변화인지(연령 효과), 아니면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특정 시기에 경험한 역사적 사건의 영향으로 생긴 변화인지(세대 효과)를 구분할 수

13) 이 연구에서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앞서 3장 1절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전국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 응답자들의 사회 연결망 자료를 구성할 수 있는 가용 자료가 2004년 KGSS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조사 문항을 사용한 제조사를 기다리거나, 새로운 자료를 찾거나, 사회적 지원망 조사 문항이 아닌 문항들을 사용하여 연결망을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연령 효과와 세대 효과의 분리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Riley 1987; Erdman 1978). 예를 들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 37세와 52세가 서로 다른 대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37세가 아직 52세의 연령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37세들이 경험한 특정한 역사적 사건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만으로는 2004년 당시의 37세들이 52세가 되었을 때, 2004년 당시의 52세의 사회연결망과 같은 연결망으로 변할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패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잡아내지 못하는 것은 모든 일회적 사회조사 연구의 문제점이다. 한 시점에서의 사회를 설명하고, 이 설명에서의 연령 범주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묶어 사용해야 한다는 이 연구의 문제 제기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 한해서는 연령 효과와 세대 효과의 구분은 필요성이 적다. 다만 위의 두번째 연구 한계와 발전 방향을 고려하면 패널 연구와 그에 따른 반복 분석 및 비교는 여전히 필요한 연구 과제라 하겠다.

연령은 핵심적인 사회 구조의 축이자 인간 생의 과정이 응축된 흐름이기 때문에, 연령 범주의 재구성이라는 이 연구의 과제는 수많은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젠더 차이, 실증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와의 연계, 종단 조사를 통한 비교 연구, 세대 개념과의 연결 등이 이 연구를 출발점으로 시작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 작업들을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구혜란. 2005. “한국인의 사회적 지원망: 국제비교연구.” 한국종합사회조사 제 2차 심포지엄: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발표문.

그레이브터, 프레드릭 J., 래리 B. 윌나우, 김광재·김효동 옮김. 2009. 《사회과학 통계방법론의 핵심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박기남. 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 갈등 연구: 연령계층별, 성역할 태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2):37-71.

박명호. 2012. “정치적 태도의 연속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세대와 고령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5(4):145-162.

박재홍. 2001. “세대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47-78.

—. 2005. “한국 사회의 세대 구성” 《문학과사회》 71(3):172-186.

석재은. 2009.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와 영향 요인.” 《보건사회연구》 29(1):163-191.

석현호 외. 2005. 《한국사회종합조사 KGSS 200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어수영·곽진영. 2002. “한국인의 정치 참여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정치학회보》 35(4): 165-188.

전상진. 2002.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세대개념의 분석적 구분.” 《한국인구학》 25(2): 193-230.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13. 통계표ID: DT_1B81A20, URL: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81A20&conn_path=I3&path=NSI (2013년 5월 2일 접속).

Burt, Ronald S. 1991. "Measuring Age as a Structural Concept." *Social Networks* 13(1):1-34.

Chevan, Albert. 1982. "Age, Housing Choice, and Neighborhood Age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5):1133-49.

Elder, Glen H., Jr. 1975. "Age Differentiation and the Life Cours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65-90.

—. 1985.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 Cornell University Press.

Feld, Scott L., J. Jill Suitor, and Jordana Gartner Hoegh. 2007. "Describing Changes in Personal Networks over Time." *Field Methods* 19(2):218-36.

Fischer, Claude S., and Stacey J. Oliner. 1983. "A Research Note on Friendship, Gender, and the Life Cycle." *Social Forces* 62(1):124-33.

Ibarra, Herminia. 1992. "Homophily and Differential Returns: Sex Differences in Network Structure and Access in an Advertising Firm."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3):422-47.

Klecka, William R. 1980. *Discriminant Analysis*. SAGE Publications, Incorporated.

Neugarten, Bernice L. 1974. "Age Groups in American Society and the

Rise of the Young-Old.”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15(1):187-98.

___ . 1996. “Time, Age, and the Life Cycle.” pp.114-127 in Dail A. Neugarten(eds.), *The meanings of a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eugarten, Bernice L, and Nancy Datan. 1996.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the Life Cycle.” pp.96-113 in Dail A. Neugarten(eds.), *The meanings of a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eugarten, Bernice L., Joan W. Moore, and John C. Lowe. 1965. “Age Norms, Age Constraints, and Adult Socializ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6):710-17.

Palmore, Erdman. 1978. “When Can Age, Period, and Cohort be Separated?” *Social Forces* 57(1):282-95.

Riley, Matilda White. 1973. “Aging and Cohort Succession: Interpretations and Misinterpretations.”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37(1):35-49.

___ . 1987. “On the Significance of Age in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1):1-14.

Riley, Matilda White, Anne Foner, and Joan Waring. 1988. “Sociology of Age.” pp.243-290 in Neil J. Smelser(eds.), *Handbook of Sociology*. SAGE Publications, Incorporated.

Rosenfeld, Jake, and Meredith Kleykamp. 2009. “Hispanics and Organized Labor in the United States, 1973 to 2007.”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6):916-37.

Ryder, Norman B.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6):843-61.

Schieman, Scott, Melissa A. Milkie, and Paul Glavin. 2009. "When Work Interferes with Life: Work-Nonwork Interference and the Influence of Work-Related Demands and Resour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6):966-88.

Schnittger, Maureen H., and Gloria W. Bird. 1990. "Coping among Dual-Career Men and Women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Family Relations* 39(2):199-205.

Settersten, Richard A., Jr., and Karl Ulrich Mayer. 1997. "The Measurement of Age, Age Structuring, and the Life Cours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233-61.

Han, Shin-Kap, and Chi Sang-Hyun. 2012. "The Dichotomy Unspooled: Outlining the Cultural Geography of Seoul."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6(6):1-29.

Taylor, Verta, Katrina Kimport, Nella Van Dyke, and Ellen Ann Andersen. 2009. "Culture and Mobilization: Tactical Repertoires, Same-Sex Weddings, and the Impact on Gay Activis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6):865-90.

Turner, R. Jay, and Franco Marino. 1994. "Social Support and Social Structure: A Descriptive Epidemiolog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3):193-212.

Wasserman, Stanley, and Katherine Faust.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llman, Barry. 1994. "I was a Teenage Network Analyst: the Route from the Bronx to the Information Highway." *Connections* 17(2):28-45.

Wellman, Beverly, and Barry Wellman. 1992. "Domestic Affairs and Network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9(3):385-409.

Yee, Jaeyeol. 2000. "The Social Networks of Koreans." *Korea Journal* 40(1):325-52.

<Abstract>

Reconstructing the Age Categories of Korean According to Social Support Network

Kim Ee-Sun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very society has its own age norms and age structure, hence people are getting old through not only biological changes, but also social changes. On this account, age is one of the key indicators reflecting person's social position, role, and social identification. However, notwithstanding the importance of age, many researches of social science take age variable for granted somehow; using it as continuous and linear variable or categorical variable of 5 or 10 years units, which doesn't represent life course of people precisely. Age variable should denote distinction of different status of life course and social position by using categories grouped homogeneous things together and heterogeneous things separate. This thesis starts with this critical perspective and try to reconstruct age categories based on theoretical and empirical grounds: social network theory and social support network data from KGSS 2004. By analyzing the data, this

thesis found the following: 1) The social support network of Korean shows a hierarchical structure which composed of core strata (spouse, close friends), middle strata (parents, siblings, children, neighbo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periphery strata (the other groups). 2) Shape and content of the social network change through the life course, hence each year of age are divided into six categories by patterns of the support network. The six categories are age 18~26, 27~30, 31~39, 40~67, 68~76, and 77~93. 3) These six categories are verified by ANOVA test, and show better statistical performance than other age categories with regard to some of criteria variables (political attitude, behavior of social support, values for family and friends).

Keywords: Age, Age Categories, Social Network, Social Support Network, Life Course, KGSS 2004.

Student Number: 2011 - 23127